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연구

2022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유 희 정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연구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유 희 정


# 인 준 서

유희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주 영 애            (인)

심 사 위 원           김 훈 주            (인)

심 사 위 원           최 배 영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문화상품의 소재가 되는 책가도의 전통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연구의 관점에서 조선 후기 책가도에 나타난 책갑 문양을 기반으로 문화상품에서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하에 202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여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을 비롯해 개인 소장자의 책가도 이미지로 탑재되어 있는 웹사이트와 도록에 대한 사례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대상의 첫 번째 선정기준은 선행연구들에서 조선 후기 궁중 화원의 책가도로 밝혀진 것 그리고 책가도의 구성 및 기물의 종류, 서양 화법의 적용 등에서 화격이 높은 궁중 화원 급의 작품으로 추정되거나 궁중 책가도를 모사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 선정기준은 조선 후기 책가도 가운데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책갑의 문양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18C 말부터 19C 후반 사이에 제작된 장한중 필 책가도(경기도박물관), 팔각 책가도(개인 소장), 이형록 필 책가도(개인 소장), 이용록 필 책가도(국립중앙박물관), 이용록 필 책가도(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운현궁000573 책가도(서울역사박물관), 운현궁000574 책가도(서울역사박물관), 전주68671 책가도(국립전주박물관), 이택균 필 책가도(서울공예박물관), 고궁6499 책가도(국립고궁박물관), 고궁6500 책가도(국립고궁박물관), 동원3322 책가도(국립중앙박물관), 여주2039 책가도(여주박물관)를 선정하여 그에 나타난 책갑 문양을 이미지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들 총 13점 책가도의 책갑 문양 분석 방법으로는 먼저 책가도의 책갑을 종이와 직물로 서책을 감싼 포갑, 서책의 앞뒤 겉장을 장황한 화첩, 원통형

의 두루마리 서책인 권축장으로 범주를 한정하였다.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기하문, 기물문, 식물문, 자연산수문 등으로 대분류를 한 후 다시 각각에 포함된 이미지에 따라 소분류를 하였다. 다음으로 각 책가도의 책갑으로 포갑, 화첩, 권축장의 수량과 문양의 등장 빈도를 집계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13점의 책가도에서 가장 많은 책갑 문양은 기하문으로 247개(53.8%)로 나타났다. 마름모무늬가 대표적이었고 그밖에 삼각형 무늬, 연환무늬, 격자무늬, 빗금무늬 등이 단독이나 복합문으로 그려져 있었다. 식물문은 125개(27.2%)가 확인되었다. 주로 둥근 원에 넝쿨무늬를 채우는 형태와 전체적으로 넝쿨무늬만을 그려 넣거나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꽃무늬를 넣은 넝쿨꽃무늬, 사군자무늬, 과일무늬 등도 있었다. 기물문은 73개(15.9%)가 확인되었는데 쌍서각, 폭보, 전보, 서보, 여의 등이 그려진 보배무늬 혹은 둥근 넝쿨무늬와 보배무늬가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자연산수문은 구름무늬가 14개(3.1%)로 나타났다.

둘째, 책가도의 책갑에서 대표적 문양을 중심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한 결과, 기하문의 마름모무늬는 자연의 광물 중 가장 단단한 금강석과 관련해 영원불변의 빛과 굳건함이라는 상징성을 함축하였다. 식물문의 넝쿨무늬는 넝쿨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강인함을, 넝쿨무늬에 크고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넝쿨꽃무늬는 전진과 화합을, 사군자의 국화무늬는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였다. 기물문의 보배무늬 가운데 쌍서각은 다복과 장수, 서보는 타고난 복과 벼슬, 전보는 재물과 부귀, 폭보는 진실함, 여의는 상서로움을 나타냈다. 자연산수문의 구름무늬는 상승의 기운과 성스러움을 상징하였다.

셋째, 문화상품에서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활용품에 문양을 적용하는 목업(mock-up) 작업을 이행하여 문구·사무용품의 서류함, 명함, 다이어리, 패키지 등에 기물문의 보배무늬를, 패션·잡화용품의 백팩, 에코백, 티셔츠에 기하문의 마름모무늬, 식물문의 넝쿨꽃무늬와 넝쿨무늬를 적

용하였다. 또한 식생활용품의 머그잔에 식물문의 국화무늬와 등근 넝쿨무늬, 자연산수문의 구름무늬를, 플레이트에 등근 넝쿨무늬와 넝쿨무늬 그리고 보배무늬를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역사적으로 보전되어 온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학술 가치를 갖고 있으며 세밀하게 묘사된 다채로운 문양은 뛰어난 예술성을 발현하여 앞으로 현대의 문화상품에서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II. 조선 후기 책가도와 문화상품 .....	6
1. 조선 후기 책가도 .....	6
2. 문화상품 .....	20
3. 선행연구 .....	27
III.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 및 문화상품에서의 활용 .....	31
1.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	31
2. 책가도에 나타난 책갑 문양 .....	38
3. 문화상품에서 책가도의 책갑 문양 활용 방향 .....	73
IV. 결론 및 제언 .....	89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I-1> 사례 조사 대상 .....	4
<표 III-1> 장한중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	41
<표 III-2> 팔각 책가도의 책갑 문양 .....	44
<표 III-3> 이형록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	47
<표 III-4> 이응록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	50
<표 III-5> 이응록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	52
<표 III-6> 운현궁000573 책가도의 책갑 문양 .....	55
<표 III-7> 운현궁000574 책가도의 책갑 문양 .....	57
<표 III-8> 전주68671 책가도의 책갑 문양 .....	59
<표 III-9> 이택균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	62
<표 III-10> 고궁6499 책가도의 책갑 문양 .....	64
<표 III-11> 고궁6500 책가도의 책갑 문양 .....	66
<표 III-12> 동원3322 책가도의 책갑 문양 .....	69
<표 III-13> 여주2039 책가도의 책갑 문양 .....	71
<표 III-14> 13점의 책가도에 나타난 책갑 문양 .....	72
<표 III-15> 책가도의 책갑 문양별 상징적 의미 .....	79
<표 III-16>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	88

## 그림 목 차

<그림 II-1> 책가도의 개념 도식 .....	7
<그림 II-2> 책가도 .....	8
<그림 II-3> 서안형 책거리의 일부 .....	8
<그림 II-4> 나열형 책거리 .....	9
<그림 II-5> 일월오봉도 병풍 .....	12
<그림 II-6> 광분양행락도 병풍 .....	12
<그림 II-7> 다보각경도 .....	16
<그림 II-8> 중국 청나라 궁궐의 채화 .....	16
<그림 II-9> 투시 원근법 .....	18
<그림 II-10> 역원근법(좌)과 다시점(우) .....	19
<그림 II-11> 책가도 초본 .....	20
<그림 II-12> 책가도 이미지 활용 문화상품과 패키지 .....	26
<그림 III-1> 책감류 .....	31
<그림 III-2> 순종어제 책감 .....	33
<그림 III-3> 조선 서책 부분 .....	35
<그림 III-4> 오침안정법 .....	35
<그림 III-5> 포갑 .....	36
<그림 III-6> 화첩 .....	37
<그림 III-7> 권축장 .....	37
<그림 III-8> ‘張漢宗印’ 인면 .....	40
<그림 III-9> 장한중 필 책가도 .....	40

<그림 III-10> 선묘법 유·무 .....	43
<그림 III-11> 팔각 책가도 .....	43
<그림 III-12> 장한중 필 책가도의 큰 꽃무늬(좌)와 팔각 책가도의 큰 꽃무늬(우) .....	44
<그림 III-13> ‘李亨祿印’ 인면 .....	46
<그림 III-14> 이형록 필 책가도 .....	47
<그림 III-15> 계단식 책가 구획 .....	49
<그림 III-16> 이응록 필 책가도 .....	49
<그림 III-17> 이응록 필 책가도 .....	52
<그림 III-18> 수진보작 .....	54
<그림 III-19> 운현궁000573 책가도 .....	55
<그림 III-20> 운현궁000574 책가도 .....	57
<그림 III-21> 전주68671 책가도 .....	59
<그림 III-22> ‘李宅均印’ 인면 .....	61
<그림 III-23> 이택균 필 책가도 .....	61
<그림 III-24> 고궁6499 책가도 .....	63
<그림 III-25> ‘壽福康寧’ 인면 .....	65
<그림 III-26> 고궁6500 책가도 .....	66
<그림 III-27> 포복문병 .....	68
<그림 III-28> 동원3322 책가도 .....	68
<그림 III-29> 여주2039 책가도 .....	70
<그림 III-30> 마름모무늬(좌)와 마름꽃무늬(우) .....	74
<그림 III-31> 넝쿨무늬(좌)와 넝쿨꽃무늬(우) .....	76
<그림 III-32> 보배무늬 .....	77

<그림 III-33> 사운(絲雲)의 구름무늬 .....	78
<그림 III-34> 보배무늬를 활용한 문구·사무용품 예시 .....	81
<그림 III-35> 보배무늬를 활용한 다이어리 예시 .....	82
<그림 III-36> 권축장 형태와 보배무늬를 활용한 패키지 예시 .....	82
<그림 III-37> 포갑 형태와 마름모무늬를 활용한 백팩1 예시 .....	84
<그림 III-38> 마름모무늬 유닛 패턴을 활용한 백팩2 예시 .....	84
<그림 III-39> 넝쿨꽃무늬를 활용한 에코백 예시 .....	85
<그림 III-40> 넝쿨무늬를 활용한 티셔츠 예시 .....	85
<그림 III-41> 국화무늬·넝쿨무늬·구름무늬를 활용한 머그잔 예시 .....	87
<그림 III-42> 넝쿨무늬·보배무늬를 활용한 플레이트 예시 .....	8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 생활의 전반에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 물론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의식주, 의례, 여가, 예술 등과 같은 큰 틀에서 동질성과 연속성으로 집단을 묶는 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지만 문화상품, 문화콘텐츠 등과 같이 오늘날 문화에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동반되고 있다. 이에 문화의 가치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문화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1909-2005)가 그의 저서 『위대한 혁신』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기계적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산업이 급부상하여 일반 대중들의 문화 향유의 여건이 형성되면서 문화산업을 통한 새로운 문화가 생성이 되고 있다.<sup>1)</sup> 나아가 세계 각국이 문화산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동, 전파, 흡수라는 문화적 특성으로 이제는 더이상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각국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국격(國格)의 일환이자 고유의 정신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제 세계 각국은 하나의 지구라는 공동체 안에 세계화(globalization)되고 있고 문화 역시 공유의 경험이 늘어나고 있

1) 윤석진·우상준(2021), 문화산업 및 소셜 미디어 콘셉트 이해, ALL ABOUT 문화콘텐츠, 나무자전거, p.392.

다. 따라서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만큼 내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문화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새로운 전통의 문화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된다. 예를 들면 한류의 중심에 있는 K-POP의 경쾌한 리듬이나 군무(群舞)는 우리 역사 속 DNA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전통 놀이인 농악 놀이와 사물놀이에서 북, 징과 같은 전통악기의 경쾌하고 단순한 리듬의 반복성은 함께 춤추는 관객들과 하나가 되는 중독성을 띠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은 고유의 DNA는 현대화되어 표출되는 과정에서 타문화권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요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통은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원천이다. 전통적인 문화 요소로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작업은 결코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은 일이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유형적 이미지만으로도 문화상품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문화소비의 주체가 다양화되고 가치소비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문화상품의 상당수는 고유의 상징적 의미는 조명되지 않은 채 외적인 이미지만을 활용하여 찍어내듯 만들어지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책가도를 활용한 기존의 문화상품들은 대부분 책가도의 전면(全面) 이미지가 상품에 이용되고 있으나 그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한 조명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상품의 소재가 되는 책가도의 전통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연구의 관점에서 조선 후기 책가도에 나타난 책갑 문양을 기반으로 문화상품에서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2) 채금석(2017), 문화와 한 디자인: 한국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학고재, pp.15-17.

## 2.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여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을 비롯해 개인 소장자의 책가도가 이미지로 탑재되어 있는 웹사이트와 도록에 대한 사례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첫 번째 기준은 선행연구들에서 조선 후기 궁중 화원의 책가도로 밝혀진 것 그리고 책가도의 구성 및 기물의 종류, 서양 화법의 적용 등에서 화격이 높은 궁중 화원 급의 작품으로 추정되거나 궁중 책가도를 모사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조선 후기 책가도 가운데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책갑의 문양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총 13점의 조선 후기 책가도를 선정하고 그에 나타난 책갑 문양을 이미지 자료로 수집하였다. 또한 책가도의 편년을 연구한 윤진영(2014)의 시기 구분<sup>3)</sup>에 의거해 18C 말부터 19C 후반까지 <표 I-1>과 같이 본 사례조사대상의 제작 추정 시기대로 책가도의 제시 순서를 장한중 필 책가도(경기도박물관), 팔각 책가도(개인 소장), 이형록 필 책가도(개인 소장), 이응록 필 책가도(국립중앙박물관), 이응록 필 책가도(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운현궁000573 책가도(서울역사박물관), 운현궁000574 책가도(서울역사박물관), 전주68671 책가도(전주박물관), 이택균 필 책가도(서

3) 윤진영(2014), 조선후반기 궁중 책가도의 편년적(編年的) 고찰, 민화연구 3, pp.43-81에서 궁중 책가도의 편년 시기는 제1기(1760-1780) 양식의 수용기, 제2기(1780-1830) 양식의 발전기, 제3기(1830-1880) 양식의 완숙기, 제4기(1880-1910) 변용과 퇴조기로 구분되었다.

울공예박물관), 고궁6499 책가도(국립고궁박물관), 고궁6500 책가도(국립고궁박물관), 동원3322 책가도(국립중앙박물관), 여주2039 책가도(여주박물관)로 정하였다.

<표 1-1> 사례조사대상

사례	명칭	소장처	제작 추정 시기	사례 조사 방법	사례 조사일
1	장한중 필 책가도	경기도박물관	18C 말 -19C 초	유물열람/ 이미지 파일	2021년 10월 4일
2	팔각 책가도	개인	18C 말 -19C 초	도록	2021년 12월 16일
3	이형록 필 책가도	개인	1864년 이전	유물열람/ 이미지 파일	2021년 9월 10일
4	이용록 필 책가도	국립중앙박물관	1864-1871	웹사이트	2021년 9월 30일
5	이용록 필 책가도	미국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1864-1871	웹사이트/ 도록	2021년 12월 10일
6	운현궁000573	서울역사박물관	1865년 이후	웹사이트/ 도록	2021년 11월 7일
7	운현궁000574	서울역사박물관	19C 후반	웹사이트/ 도록	2021년 10월 19일
8	전주68671	국립전주박물관	19C 후반	웹사이트	2021년 12월 2일
9	이택균 필 책가도	서울공예박물관	1871년 이후	유물열람/ 이미지 파일	2021년 12월 28일
10	고궁6499	국립고궁박물관	19C 후반	웹사이트	2021년 11월 19일
11	고궁6500	국립고궁박물관	19C 후반	웹사이트	2021년 11월 22일
12	동원3322	국립중앙박물관	19C 후반	웹사이트	2021년 10월 18일
13	여주2039	여주박물관	19C 후반	유물열람/ 이미지 파일	2021년 9월 2일

## 2)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책가도에 나타난 책갑 문양을 기반으로 문화상품에서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의 목적하에 다음과 같이 책가도의 책갑 문양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책가도의 책갑은 종이와 직물로 서책을 감싼 포갑, 서책의 앞뒤 겹장을 장황한 화첩, 원통형의 두루마리 서책인 권축장을 범주로 한정하였다. 또한 대부분 서책의 표지 장황으로 비단을 배접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책갑 문양은 직물 유물의 문양<sup>4)</sup>을 토대로 하였다.

둘째, 책가도의 책갑 문양의 분류 기준은 전통 문양의 의미와 조형적 특징을 연구하여 그 원형을 기록, 보존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전통문양 원형기록화사업<sup>5)</sup>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기하문(幾何紋), 기물문(器物紋), 식물문(植物紋), 자연산수문(自然山水紋) 등으로 대분류를 한 후 다시 각각에 포함된 이미지에 따라 소분류를 하였다.

셋째, 각 책가도의 책갑으로 포갑, 화첩, 권축장의 수량과 문양의 등장 빈도를 집계하였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바램, 박락(剝落) 등과 같이 그림의 색상이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거나, 책갑의 옆면만 그려져 장황을 알아볼 수 없는 것과 문양이 그려지지 않은 무지(無地) 종류는 확인 불가로 분류하였다.

---

4)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놀와, p.14.

5)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6년부터 직물, 도자기, 나전·화각, 금속공예, 목공예, 와전, 궁능석조물 분야의 전통문양을 조사하여 개별 문양의 설명, 사진, 문양 등을 수록한 보고서를 발간해 제공하고 있다.

## II. 조선 후기 책가도와 문화상품

### 1. 조선 후기 책가도

#### 1) 책가도의 개념

책가도(冊架圖)는 책가(冊架), 책, 책갑(冊匣), 벼루, 먹, 붓, 붓꽂이, 두루마리, 도자기, 청동기 등 여러 가지 기물들이 놓여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그림으로 책거리(冊巨里)의 한 갈래이다. 용어로 볼 때 책거리(冊巨里)라는 말은 ‘책’과 ‘거리’가 결합된 것으로 ‘책’에 복수형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거리’가 붙은 단어이다. 여기서 ‘거리’는 볼거리, 먹을거리, 일거리, 걱정거리 등과 같이 명사 뒤에 쓰여 물건이나 일을 뜻하는 의존명사이다.

책가화(冊架畵) 및 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을 연구한 이인숙의 연구를 살펴보면 책거리는 책가(冊架)의 우리말을 한자로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가(架)’는 기물을 가로로 수납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므로 책가의 의미에서 책거리는 서가(書架)와 유사한 쓰임새로 볼 수 있다.<sup>6)</sup>

책거리는 문방청완(文房淸玩)이라고 하여 선비들이 밝은 창 아래 맑은 향의 차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으며 붓이나 벼루 등 갖가지 문방구류를 애완, 수집하는 취미<sup>7)</sup>에서 완성된 문방화(文房畵)의 일종이다. 이러한 문방화에는 책이 없이 기물만을 그린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도 포함이 되므로 책거

6) 이인숙(2004), 冊架畵·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 실천민속학연구 6, p.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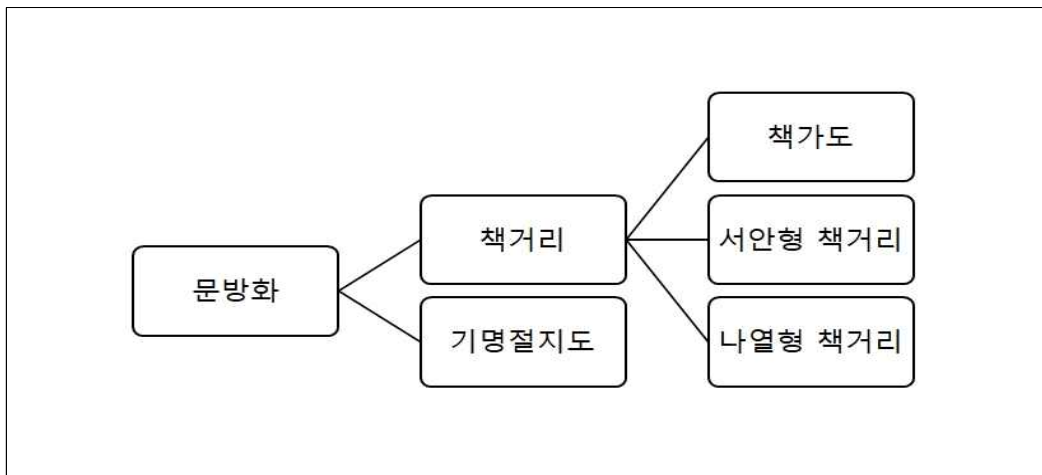
‘가(架)’의 사전 뜻풀이는 ① 물건을 얹어 놓는 장치인 시렁으로 ‘서가(書架)’가 대표적인 용례이다. ② 햇대로서 옷걸이인 ‘의가(衣架)’로도 쓰인다. ③ 건너질러 가로 대어 놓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7) 홍선표(1997), 조선후기의 회화 애호풍조와 鑑評活動, 미술사논단 5, p.121.

리와 책가도는 책이 그려진 점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책가도의 개념을 도식화하면 <그림 II-1>과 같다.

책거리를 분류하면 서가 즉 책가가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으로 크게 나뉜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첫째, 책가가 그려진 것은 책가도(그림 II-2)로 지칭된다. 둘째, 책가가 그려지지 않은 것 가운데 서안(書案)이나 상(床) 등 가구 위에 책과 기물 등이 올려진 구성으로 그려진 것은 소반형(小盤形), 집적형(集積形), 서안형 책거리(그림 II-3)라고 한다. 셋째, 책가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서 모든 기물들이 공중에 떠 있는 듯 펼쳐 그려진 것은 분산형, 바닥형, 나열형 책거리(그림 II-4)로 분류된다.<sup>8)</sup>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책거리라는 광의(廣義)의 개념 안에 포함되는 책가도는 책을 비롯해 여러 가지 기물이 포함된 서가(書架)가 그려진 문방화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II-1> 책가도의 개념 도식

8) 신미란(2006), 朝鮮後期 책거리그림과 器物 研究, 흥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그림 II-2> 책가도

출처: 서울공예박물관 [www.craftmuseum.seoul.go.kr](http://www.craftmuseum.seoul.go.kr)



<그림 II-3> 서안형 책거리의 일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그림 II-4〉 나열형 책거리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 2) 책가도의 성행 배경 및 변천

### (1) 정조와 차비대령화원

18세기 후반 정조(正祖, 1776-1800 재위) 대(代)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궁중 화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조 7년(1783) 11월, 창덕궁 규장각(奎章閣) 안에 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 직제(職制)를 마련하면서 합법적인 궁중 화원 제도가 만들어져서 고종(高宗, 1863-1907 재위) 18년(1881)까지 약 100여 년간 이어졌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규장각(奎章閣)을 핵심기구로 강화하고 이 규장각 안에 차비대령화원 직제를 두어 왕이 직접 관장하는 궁중 화원 제도를 활용해 정치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례로 역대 열성조(列聖祖)의 어제(御製)와 선왕(先王) 영조(英祖, 1724-1776 재위)의 어제(御製)·어필(御筆) 등을 봉안하여 규장각의 위상

이 국왕권(國王權)을 상징하도록 했다. 이에 방대한 양의 어제를 등서(謄書)할 수 있는 인력을 등용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궁중의 그림을 도맡아 그리는 화원들은 있었다. 즉 궁중의 안과 밖을 꾸미는 장식화, 의례나 행사를 기록하는 기록화, 의궤(儀軌)의 반차도(班次圖)나 어진(御眞) 등을 그리는 도화서(圖畫署)의 화원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당시 도화서는 궁궐 밖에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엄격한 기준 하에 도감을 설치하고 도감에서 관장하는 공적인 그림을 그렸다. 예를 들어 숙종(肅宗, 1674-1720 재위) 대에 숙종이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초상화 제작을 지시했으나 당시는 여성 화원이 없었고 종친이나 외척이 아닌 남성이 중전(中殿)에 들어갈 수 없다는 궁중의 법도를 내세운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초상화를 그릴 수 없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sup>9)</sup>

도화서의 화원 중 시험을 통해 선발된 규장각의 차비대령화원은 다른 화원들과는 달리 왕이 직접 임면(任免)하고 통제하는 최초의 정식 궁중 화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비대령화원은 직급에 따른 녹봉을 차등 지급 받았으며 3개월마다 시행되는 시험 성적에 의해 추가로 녹봉을 더 받는 등 특별한 대우가 따랐다. 또한 차비대령화원 운영의 명분이 된 인찰(印札)<sup>10)</sup> 업무를 비롯하여 중요하고 긴요한 일은 반드시 도화서의 일반 화원이 아닌 차비대령사자관과 차비대령화원 가운데서 선발해 사역을 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내각일력(內閣日曆)』<sup>11)</sup>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왕이 직접 규장각의 도서 편찬, 왕실 행사의 기록, 어진의 제작에 밀접하게 관여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조가 차비대령화원들의 그림을 채점<sup>12)</sup>했을 만큼 차비대령화원으로서의 자격이 매우 엄중히 관리되었다.

9) 강관식(2005), 조선의 화원과 궁중화원, 조선 왕실의 미술 문화, 대원사, pp.237-243.

10) 인찰(印札)은 어제를 등서할 때 줄을 맞추기 위해 붉은 선을 긋는 작업이다.

11) 강관식(2001b),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하, 돌베개, p.17.

『내각일력(內閣日曆)』은 규장각 일지(日誌)로서 1779년 1월부터 1883년 2월까지 105년 동안의 기록이 1,245책의 방대한 분량으로 남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2) 강관식(2001a),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상, 돌베개, p.589.

## (2) 궁중의 책가도

『내각일력』의 기록에 의하면 정조 8년(1784), 차비대령화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인 녹취재(祿取才)를 치르면서 문방(文房) 화문(畫門) 안의 화제(畫題)로 ‘책가(冊架)’라는 언급이 처음 등장하였다.<sup>13)</sup>

책가도가 궁중 회화 가운데 장식화(裝飾畫)로 시작되었음은 강관식(2001)<sup>14)</sup>과 이인숙(2004)<sup>15)</sup>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조선 후기 반차도(班次圖)와 같은 기록화가 기록과 보전에 치중한 그림이라면 장식화는 궁중의 안과 밖을 장식하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림이다. 또한 심미적인 기능뿐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교훈적, 벽사적 목적의 역할로도 제작되었다. 이로 인해 궁중 장식화는 왕실 구성원의 지위나 공간의 성격에 따라 그림의 소재를 달리했다. 이는 그림의 상징적 의미와 설치 장소의 성격을 고려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궁궐의 중심인 정전(正殿) 일대 즉 외전의 대표적인 장식화는 <그림 II-5>와 같은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였다. 왕실의 가례나 연향에서는 모란도로 장식이 이루어졌고, 왕과 왕비의 일상적 공간인 내전(內殿)에는 만복(萬福)과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도(十長生圖), 요지연도(瑤池宴圖)<sup>16)</sup>,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sup>17)</sup>(그림 II-6) 등이 주로 병풍(屏風) 형태로 장식되었다. 동궁전에는 다남(多男)과 부귀의 상징이며 교훈적 의미가 담긴 백자도와 책가도로 장식이 되었다<sup>18)</sup>.

13) 강관식(2001c), 朝鮮後期 宮中 冊架圖. 미술자료 66, pp.79-96.

14) 강관식(2001a), 조선후기 궁중회화 연구·상, 돌베개, p.591.

15) 이인숙(2004), 冊架畫·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 실천민속학연구 6, pp.169-237.

16) 요지연도(瑤池宴圖)는 중국의 신녀 서왕모(西王母)가 신선들의 땅인 곤륜산(崑崙山)의 연못인 요지(瑤池)에 주나라 목왕(穆王)을 초대해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17)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는 중국 당나라 때 각종 복락으로 가득했던 분양의 군왕 곽자의(郭子儀)의 노후의 행복한 삶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18) 박정혜(2013), 궁중회화의 세계,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pp.136-149.



<그림 II-5> 일월오봉도 병풍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그림 II-6> 곽분양행락도 병풍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이와 같은 장식화로 꾸민 병풍 가운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병(日月五峰屏)은 왕이 임하는 모든 곳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대신들과 정사(政事)를 논하는 편전(便殿)에 책가도병(冊架圖屏)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정조 12년(1788) 9월 18일에는 정조가 차비대령화원들의 그림을 채점한 후 별관부(別判付)를 내렸는데 신한평(申漢枰, 1735-1809)과 이종현(李宗賢, 1748-1803)이 자유 화제(畫題)의 그림으로 마땅히 그려야 할 책거리(冊巨里)를 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양을 보내라는 기록<sup>19)</sup>도 있다. 이는 정조가 책가도를 ‘문체반정(文體反正)’<sup>20)</sup> 정책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였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조선 시대에는 왕이 만 가지가 넘는 정무를 보는 가운데 잠시 쉰다는 의미의 만기여가(萬機餘暇)로서 시나 그림을 휴식의 일부로 향유하였다. 또한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더욱 좋아하게 마련이라는 뜻의 ‘상유호자(上有好者) 하필유심언(下必有甚焉)’이라는 맹자의 구절처럼 궁중 회화의 후원자로서 왕이 선호하는 취향은 당대의 화풍을 대변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였다.<sup>21)</sup> 이에 정조가 제위 할 당시에는 책가를 주제로 하는 그림이 성행했다.

### (3) 책가도의 대중화

책가도라는 그림 형식의 연원(淵源)은 중국 청대(清代)에 유행하던 다보각경

19) 강관식(2001a),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상, 돌베개, p.589.

20) 정병모(2017), 민화는 민화다, 에스앤아이팩토리, pp.44-45.

문체반정은 정조가 청으로부터 유입되는 서화(천주화) 및 청의 서적에서 문체를 문체 삼아 정통 고문의 문체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한 정책이다. 이는 국가의 체계를 위협하는 천주교 유입을 막기 위해 서학금지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청의 서적 전체로 확대되었다.

21) 황정연(2005),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書畫收藏)과 미술 후원,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p.65.

도(多寶閣景圖)·다보격경도(多寶格景圖)<sup>22)</sup>(그림 II-7)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18세기 후반 북학(北學)의 대두와 더불어 청의 문물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애완(愛玩)하는 사회적 풍토가 유행하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으로부터 들어오는 책, 기물, 호사품 중에 다보각경도나 다보격경도가 포함되어 전래된 후 궁중뿐 아니라 중앙의 상류층과 부호들에게까지 퍼져나갔던 것으로 사료된다.<sup>23)</sup> 또한 연행사절단을 수행한 화원들이 귀인의 저택에서 서양 화법이 접목된 다보각경도와 중국 청나라의 궁궐 건축 채화(彩畵)(그림 II-8)의 문방기명을 직접 보게 된 경험은 책가도의 제작 동인과 유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24)</sup>

더욱이 궁중의 장식화인 책가도가 사대부나 부호가(富豪家)처럼 민간으로 전파되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일월오봉도, 십장생도 등의 다른 궁중 장식화에 비해 책가도가 단시간에 민간으로 전파되었던 이유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이유를 짚어보면 첫째, 청의 학문, 문물, 기술 등을 적극 수용하여 물질경제와 삶의 질을 풍요롭게 높일 것을 주장한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sup>25)</sup>으로 대표되는 북학의 성행 그리고 청과의 활발한 교류로 선진화된 문물과 기호품을 선호하고 애완하는 사회 풍토의 유행이 요인으로 작용했다.<sup>26)</sup> 둘째, 18세기 상품경제의 발달은 경제적 잉여를 발생시켰고 이는 미술품에 대한 소비로 이어져 왕공사대부(王公士大夫)의 지배계층뿐 아니라 지주, 중소상인 등의 중

22) 다보격경도는 중국 청대의 전반에 걸쳐 유행하던 장식화이다. 이는 궁정 화원인 예수회 선교사 출신 이탈리아 화가 카스틸리오네[중국명 낭세녕(郎世寧, 1688-1766)]의 눈속임 그림[트롬프뢰유(trompe-l'œil) 실제 눈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으로 그는 궁중 화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전통 궁중화법인 원채화법과 서양화법을 절충한 새로운 화풍을 창안하여 선원근법과 명암법이 적용된 사실적 표현으로 문방, 고동기 등이 진열된 다보격경도나 규모가 더 큰 다보각경도를 그렸다.

23) 강관식(2001a),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상, 돌베개, p.595.

24) 박정혜(2014), 궁중 장식화의 세계,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p.138.

2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B6%81%ED%95%99&ridx=0&tot=10>(검색일: 2021.11.10.)

26) 신미란(2006), 朝鮮後期 책거리그림과 器物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간계층 사이에서도 활성화되었고 이는 미술 시장이 확대,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sup>27)</sup> 셋째, 당시의 정치적 이념과 신분 질서의 변화도 궁중 장식화로 시작된 책가도가 민화(民畵)의 범주 안으로 전과, 파생되어 책거리 그림으로 변천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sup>28)</sup>

본래 18세기 후반 궁중에서 그려졌던 책가도는 주로 서책이 작품의 소재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서책보다는 고동기, 도자기, 화훼 등 여러 가지 귀한 기물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문을 중시하고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향하는 국가 이념에 부합되는 목적성을 띤 궁중의 책가도는 사대부들이 앞다투어 본떠서 자신의 집을 장식하는 데 활용되었고, 민간으로 전과되면서 서민들의 취향이 반영되어 변화를 거듭해갔다. 이로 인해 학문의 중시와 더불어 수복(壽福)이나 길상(吉祥)의 의미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물들을 더 많이 포함시켰으며, 궁중의 커다란 병풍보다는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책가를 그리지 않고 책과 기물만을 그린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실용화로서 책거리 그림으로 변화하게 되었다.<sup>29)</sup>

---

27) 국사편찬위원회(2008), 미술과 시장,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 두산동아(주), pp.199-200.

28) 신미란(2006), 朝鮮後期 책거리그림과 器物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29) 정병모(2012),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돌베개, p.153.



〈그림 II-7〉 다보각경도  
출처: 조선후반기 궁중 책가도의 편년적 고찰



〈그림 II-8〉 중국 청나라 궁궐의 채화  
출처: 조선 궁궐의 그림

### 3) 책가도의 조형적 특징

책가도의 대표적인 조형 특징은 서양화법의 적용이다. 그림 안의 책가와 기물들이 선원근법<sup>30)</sup>이나 음영법 등 기존 동양화에서는 볼 수 없던 서양화법의 조형적 요소들이 적용된 것이다.

초기 궁중의 장식화로서의 책가도는 사면을 측량하여 그리는 사면측량법인 서양의 투시 원근법(그림 II-9)이 적용되었다. 18세기 이규상(1727-1799)의 『일몽고(一夢稿)』<sup>31)</sup>를 살펴보면 책가도에 대해 ‘사면측량화법인 서양국의 그림을 모방하여 그렸으며 반드시 채색하였다’ 고 하였다. 또한 ‘이 기법은 김홍도(1745-?)가 뛰어났다’ 고 기록하고 있다.<sup>32)</sup> 이처럼 책가도는 음영의 표현과 정교하고 세밀한 사실적 표현으로 입체감과 공간감이 뛰어나 한쪽 눈을 감고 보면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눈속임 그림 즉 트롱프뢰유 기법의 서양화법 조형의 요소들이 적극 반영되었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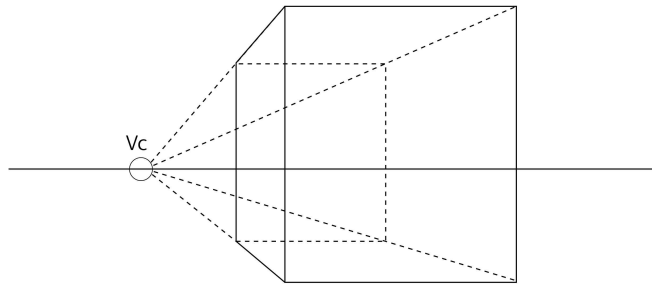
나아가 궁중 장식화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투시원근법과 음영법 같은 서양화법이 독특하게 변형되기도 하였다. 궁중 화원처럼 서양화법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제작자의 부재(不在)가 새로운 조형적 특징의 그림으로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즉 대중화되면서 책가도는 구성 형식에서 큰 변화를 보여 책가가 그림에서 빠지면서 책가도가 아닌 문방화의 범주에 속한 책거리 그림이 주로 그려졌다. 책을 위주로 여러 기물들을 서로 유기적 관계없이 궁중에 떠있듯이 나열하여 그리는 나열형 책거리 그림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화법은 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렸을 화격(畫格)이 높은 그림에서도 발견이

30) 선원근법(線遠近法)은 기하학적 원리의 투시도법에 따라 시선과 평행한 모든 직선이 수평선 위의 한 점인 소실점으로 모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물체의 크기는 거리에 비례해 작아진다.

31) 『일몽고』는 조선 후기 문인 이규상(李圭象, 1727~1799)의 문집으로 이 책의 <서가록(書家錄)>, <화주록(畫廚錄)>에는 영·정조시대의 화가들에 대한 열전(列傳) 형식의 서화 비평이 실려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94934&cid=42642&categoryId=42642> (검색일: 2021. 11. 30)

32) 박주현(2021), 서양화법을 품은 조선의 그림 책가도, 에스앤아이팩토리, p.23에서 재인용.

33) 이정은(2017), 李亨祿과 19세기 조선 화단,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2.



〈그림 II-9〉 투시 원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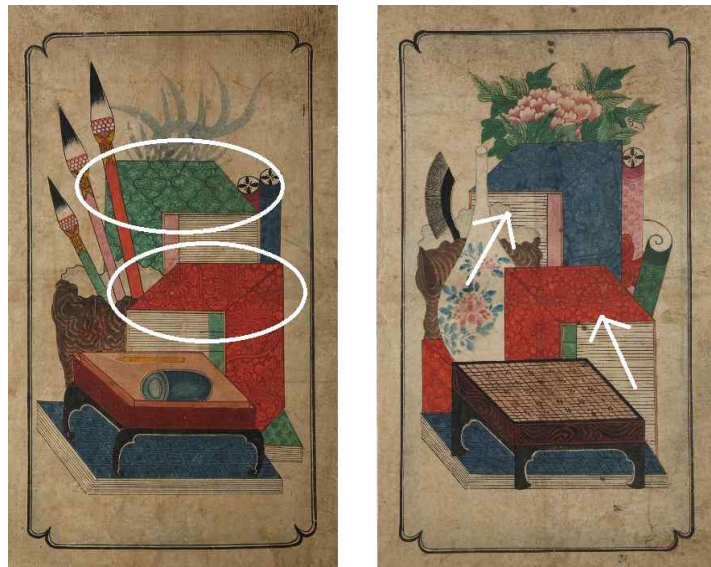
된다. 실제로 화원의 이름이 그림 속에 은인(隱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류 계층뿐 아니라 궁중에서도 책가도와 함께 나열형 책거리 그림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궁중 화원 수준의 책거리 그림은 책가도에서와 같이 투시법, 음영법 등의 서양화법과 진채(眞彩)<sup>34</sup>로 그려진 조형적 특징이 그대로 보여진다.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은 서안형 책거리 그림으로 책가가 빠지고 서안이나 경상 위에 놓인 책과 그 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쌓여진 구성으로 그려졌다. 이는 나열형 책거리 그림에 비해 더 다양한 형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책가도와 나열형 책거리가 궁중 장식화에서 시작되어 사대부와 같은 상류층으로 전해진 것과 달리, 민간의 대중 속에서 수요층의 신분이나 상황에 맞게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구성 형식에서 책이나 문방구는 줄어

34) 진채(眞彩)는 진하고 두텁게 채색하는 방법으로 주로 색안료(석채)에 아교를 개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채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진채화로 불화, 궁중 장식화, 민화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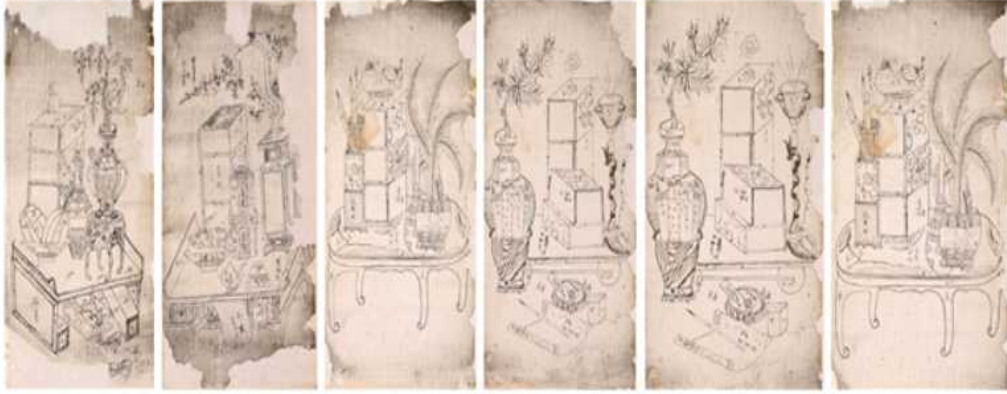
들고 청의 고동기 대신 조선의 자기와 복식 등의 기물, 꽃과 과일 등의 자연 물이 등장했다. 또한 조형적으로는 책갑의 뒤가 더 넓어지는 역원근법이나 입체의 기물을 여러 방향에서 시각화하는 다시점(多視點)의 특징이 나타났다(그림 II-10). 이와 같은 서안형 책거리 그림의 수요층 증가로 밑그림에 해당하는 본(本) 그림(그림 II-11)이 생겨났고 이는 구성력이 약한 화가들이나 그림 실력이 조금 있는 일반인들이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쉽게 모사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으로 유추된다.<sup>35)</sup>



<그림 II-10> 역원근법(좌)과 다시점(우)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http://www.nfm.go.kr)

35) 신미란(2006), 朝鮮後期 책거리그림과 器物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32.



〈그림 II-11〉 책가도 초본

출처: 가회민화박물관 [www.emuseum.go.kr](http://www.emuseum.go.kr)

## 2. 문화상품

### 1) 문화상품의 개념

문화는 좁게는 예술적, 정신적 산물에서 넓게는 인간 집단의 모든 삶의 양식까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문화는 국가 또는 국경이 생기기 전부터 공간적, 시간적으로 동일한 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곳에 사는 인간 집단의 동질성으로 그 집단을 특정할 수 있는 상징이나 특징을 말한다.

인류학자 Edward Burnett Tylor(1832-1917)가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sup>36)</sup>

로 정의한 바와 같이 문화는 인류의 탄생으로 시작된 인간 삶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으로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시공간의 제약이 낮아져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 현대에서는 더욱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자 국격(國格)으로 변화되고 있다.<sup>37)</sup>

문화상품은 ‘문화’와 ‘상품’의 합성어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항<sup>38)</sup>에 따르면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를 포함함)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문화상품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본 전희관(2015)은 앞서 언급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상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독특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용 가치가 결합되어 생성되는 모든 상품, 상품에 문화적 요소를 표현하거나 접목시킨 상품, 전통문화나 문화재 등 문화적 소재와 관련된 고유 특성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담아내어 실제로 생산, 유통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산업이 낳은 모든 결과물로 문화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함으로써 산업의 생산 및 소비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상품을 의미한다.<sup>39)</sup>

이상과 같이 문화라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도의 가치를 함축한 문화 요소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더하여 문화적 가치를 상품화한 것을 문화상품이라고 한다. 특히 문화상품은 무형의 정신적, 상징적 가치에 유형의 기능적, 실용적 가치를 더한 것이다. 이는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타 집단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가치를 담고 있다.<sup>40)</sup>

36) 이윤희(2013),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의 문화상품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pp.412-422에서 재인용.

37) 채금석(2017), 문화와 한 디자인: 한국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학교재, pp.13-14.

38) <https://www.law.go.kr/LSW/lInfoP.do?efYd=20220118&lsiSeq=239501#0000>(검색일 2022.04.15)

39) 전희관(2015), 백제 유물과 문양을 활용한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 개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8-39.

## 2) 문화상품의 영역 및 분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sup>41)</sup>에 의하면 문화상품이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되는 산업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둘째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셋째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넷째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다섯째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여섯째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일곱째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여덟째 대중문화예술산업, 아홉째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열째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과 이들 가운데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의 측면과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의 측면을 접목해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 문화상품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이윤희(2013)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의 문화상품 발전방안 연구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복제성, 응용성, 전통성, 현대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복제성은 유물이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크기와 재질 변화의 유무를 떠나 형태를 똑같이 복제하는 것이다. 응용성은 유물 자료에서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여 새로운 이미지나

40) 이윤희(2013),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의 문화상품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p.415.

4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약칭: 문화산업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기능을 가진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통성은 전통적인 요소만으로 새로운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현대성은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현대적 감성의 디자인으로 실용성 및 기능성이 중시된 문화상품을 의미한다.<sup>42)</sup> 다음으로 정예린(2021)은 문화상품의 일환으로 생활용품(사용 용도에 따라 문방·사무용품(예: 노트, 봉투, 카드, 테이프, 마우스패드 등), 주생활용품(예: 쿠션, 놀이매트, 침구류, 주방용품 등), 패션·잡화용품(예: 액자, 족자, 패브릭 포스터, 마그넷과 같은 예술·장식용품, 부채, 양말, 가방, 스카프, 손수건, 브로치 등)으로 분류하였다.<sup>43)</sup>

이상의 선행 분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상품의 현대성에 주안을 두고 전통적인 책가도의 요소를 생활용품에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책가도를 활용한 문화상품

오늘날 문화소비의 트렌드는 스마트폰의 사용과 언택트(Untact) 환경으로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다. 또한 문화소비의 주체로 부상한 MZ세대<sup>44)</sup>의 특징인 높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접근성으로 각종 정보 검색, 쇼핑, 소통도 온라인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sup>45)</sup> 이와 같은 문화소비의 트렌드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문화상품 온라인 숍(국립

42) 이윤희(2013),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의 문화상품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p.417.

43) 정예린(2021), 전통민화의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상품 실태 연구: 화조화(花鳥畵)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2-39.

44) MZ세대(MZ generation)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00733&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22.04.22)

45) 최철아·유하영·김채림(2021), 문화콘텐츠와 트렌드, ALL ABOUT 문화콘텐츠, 나무자전거, p.98.

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 가안채, 오색채담, 오이뮤, 아이디어스)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와디즈, 텀블벅)을 위주로 책가도를 활용한 상품 그리고 책가도를 상품의 패키지 디자인으로 활용한 예시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점은 전국에 있는 국립박물관들의 전통문화 상품을 구비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개발한 상품과 외주 업체의 입점 상품이 혼합되어 있었다. 가안채와 오색채담은 전통문화상품 위주의 아트상품을 기획, 개발, 유통하고 있다. 오이뮤와 아이디어스는 각각 공예 위주의 디자인 상품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스튜디오로 타업체와 협업해 상품에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와디즈와 텀블벅은 개인적 취향과 문화라는 감성이 구매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화상품 플랫폼이다.

2022년 현재 이들 온라인 숍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판매되었거나 판매 중인 책가도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사용 용도별로 분류해보면 첫째 패션·잡화용품으로 니트 머플러, 티셔츠, 현대식 한복, 자수 가방, 에코백, 니트 가방, 배지, 가방 스트랩 등이 있었다. 둘째, 주생활용품으로 장식장, 콘솔, 테이블 등과 같은 작은 가구류와 나무 트레이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나무 재질의 장식장은 책가의 본래 쓰임새와 잘 맞아떨어지는 상품으로 문화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구·사무용품으로 달력, 봉투, 카드, 노트, 명함 케이스, 필통, 필함, 폰 케이스, 방향제 등이 있었다. 넷째, 예술·장식용품으로 액자, 족자, 포스터, 패브릭 가리개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책가도는 상품의 패키지에도 활용되고 있었다. 먼저 오이뮤에서는 카카오프렌즈와 콜라보 하여 인센스 스틱(Incense stick) 패키지를 모던한 젊은 감성의 파스텔풍으로 디자인하였다. 아모레퍼시픽은 2021년 홀리데이 시즌 한정판 언락 더 시크릿 챔버(Unlock the Secret Chamber) 컬렉션에서 비밀의 방, 비밀의 서재라는 콘셉트로 책가도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기물들의 모티브는 설화수 화장품 병을 포함하여 작은 서랍장, 라디

오, 모카 포트, 향꽃이의 향, 실험 도구, 현미경 등으로 주 타겟층인 여성의 일상 소품들과 더 좋은 화장품을 개발하는 실험실을 연상케 하는 것들로 채워졌다. 또한 시간의 지혜로 빛나는 아름다움이라는 브랜드 철학의 비밀이 담긴 보물들이 모이는 순간 서가(書架) 뒤로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는 스토리를 담았다.<sup>46)</sup> KGC인삼공사의 대표 브랜드인 정관장에서도 다보록 컬렉션으로 여유와 건강, 비움과 채움의 스토리로 책가도를 패키지에 활용하였다. 현대 민화 작가와의 아트 콜라버 형식으로 모티브는 십장생 중 사슴, 소나무 등 장수와 건강에 관련된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책가도를 활용한 기존의 문화상품들은 대부분 책가도의 전면(全面) 이미지가 상품에 이용되었음을 <그림 II-12>를 통해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책가도에 나타난 책갑 문양에 초점을 두고 문화상품에서의 활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

46)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27> (검색일 2022.04.22)



에코백

출처: [www.gaanche.com](http://www.gaanche.com)



카드

출처: [www.minhwadeco.com](http://www.minhwadeco.com)



화장품 패키지

출처: [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44379](http://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44379)

<그림 II-12> 책가도 이미지 활용 문화상품과 패키지

### 3. 선행연구

책가도는 내용이나 형식에서 풍부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책가도의 역사적 배경, 유형과 작가를 주제로 하는 인문학적 연구<sup>47)</sup>, 책가도의 조형 요소나 색채에 관한 미적 연구<sup>48)</sup>, 책가도에 그려진 기물에 관한 물질적 관점의 연구<sup>49)</sup>, 책가도의 이미지를 활용한 미술교육과 감상 교육 연구<sup>50)</sup> 그리고 디자인 콘텐츠 제작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 콘텐츠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후반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나온 결과물로는 2D 평면디자인에 관한 논문 3편과 3D 입체디자인에 관한 논문 2편이 있다.

- 
- 47) 김윤경(1997), 조선시대 민화에 나타난 책거리 그림(책가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필기(1999), 18·19세기 冊架圖에 대한 고찰,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심은(2001), 朝鮮時代 冊架圖의 起源 研究,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관식(2001c), 朝鮮後期 宮中 冊架圖: 조선후기 '民書'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小考,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자료 66; 이인숙(2004), 冊架書·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 실천민속학회 실천민속학연구 6; 강관식(2018), 영조대 후반 책가도(冊架圖) 수용의 세 가지 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22; 한세현(2018), 19세기 책가도(冊架圖)의 새로운 경향, 美術史學 35; 민길홍(20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형록필 책가도: 덕수4832 <책가도>를 중심으로, 한국고고미술연구소 동원 학술논문집 16; 이정은(2017), 李亨祿과 19세기 조선 화단,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8) 김정애(1986), 朝鮮朝 民書 冊架圖의 造形的 分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민(2007), 조선후기 책거리 조형성의 근원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신애(2008), 책거리 그림의 조형성과 현대적 표현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연(2015), 조선후기 책거리 그림의 색채특성 분석을 통한 색채 및 배색팔레트 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9) 신미란(2006), 朝鮮後期 책거리 그림과 器物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민아(2009), 조선후기 책거리 그림의 素材연구 : 文房淸婉과 기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경·이부영(2016), 책거리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화예유형과 꽃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화예디자인연구 34.; 김용자(2018),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0) 유진영(2011), 전통 민화의 현대 디자인 교육 적용 연구: 책거리도와 효제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경실(2014), '책거리그림'을 통한 미술표현 지도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화(2016), 조선 후기 <책가도> 감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먼저 2D 평면디자인을 적용한 논문으로 이보라(2008)는 민화 책거리 그림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연구를 이행하였다.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표현 예술의 확장을 통해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에서 독창적인 조형성과 한국의 정서가 녹아 있는 책거리 그림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기법을 탐구하였다. 연구 범위는 17-19세기 책거리 그림 화첩과 문헌으로 설정하고 책거리 그림의 구도, 선, 색채, 문양 등의 조형적 특성과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의 형성 배경을 고찰하였다. 또한 대상의 변형, 연관성, 재해석을 통해 본인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표현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sup>51)</sup> 김재원과 김선미(2014)는 조선 시대 민화인 책가도를 현대화한 벽지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디자인과 우리 고유문화의 제품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책가도의 소재와 특징을 현재 트렌드와 접목시킨 현대적인 책가도 벽지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한국전통이미지 DB 웹사이트와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의 문양 자료실을 참고하여 디자인 소재로 삼을 문화원형을 추출하였다. 또한 2007-2013년에 개최된 국제전시 메종오브제(Maison and objet)와 해외 인테리어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인테리어 트렌드를 조사하고, 국내 벽지회사와 텍스타일 브랜드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개발을 위해 책가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컴퓨터 그래픽, 스크린프린팅 기법, 레이저커팅 기법, 디지털프린팅 기법으로 5가지 유형의 벽지 디자인을 제안하였다.<sup>52)</sup> 한편 이은아(2017)는 책가도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디지털화 된 패턴과 기술력으로 다변화되어가는 21세기의 텍스타일 디자인 산업 내에서 예술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디자인으로 책가도를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범위는 정조 대(1752-1800)의 궁중

51) 이보라(2008), 민화 책거리 그림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

52) 김재원·김선미(2014), 조선시대 민화인 책가도를 현대화한 벽지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 pp.221-230.

화원이었던 이형록(李亨祿, 1808-1883), 장한중(張漢宗, 1768-1815)의 작품과 일부 박물관 소장의 그림을 중심으로 하였다. 주제별로 7점의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흑·백의 무채색을 기반으로 적·청·황·녹색의 색채를 구성하고 문양, 구도, 배열의 변화로 책가도 표현의 다양성을 제시하였으며, 캐드(CAD) 프로그램을 활용해 DTP(Digital Textile Printing) 기법으로 면섬유에 출력한 후 수작업 표현을 가미하여 완성하였다.<sup>53)</sup>

다음으로 3D 입체디자인을 적용한 논문으로 이동주(2013)는 책가도(冊架圖)를 이용한 도제 벽걸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책가도의 서정적 감성의 바탕 안에서 도자의 현대적 이미지와 부합되는 도자 벽걸이를 제작하여 한국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8-19세기 책가도와 현대 책의 이미지, 의미와 관계, 책가도 속 기물의 길상 의미를 연구 범위로 정하여, 책가도 작품과 문헌 연구를 이행하였다. 또한 도자 벽걸이 제작은 한국의 전통 문양과 오방색을 토대로 표현하였다. 제작 방법은 백자조형토, 청자토, 백자토를 사용하여 판상성형 작업·건조 후 700℃ 전기 가마로 초벌하고 색화장토, 고화도 안료, 고화도 유약, 저화도 유약 등을 사용하여 채색·유약 작업을 하고 1,250℃ 전기 가마에서 산화 소성 재벌을 하였다. 이 연구는 책가도를 이용한 도제 벽걸이 장식이 인간의 감성에 끼치는 긍정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sup>54)</sup>. 한편 민화 책거리 그림을 응용한 도자 조명 디자인 연구를 진행한 신상아(2021)는 민화와 도자 예술의 융합 및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영역을 넓힘으로써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책거리 그림의 조형적 요소들로 조명 기능을 겸비한 장식적이면서 실용성 높은 제품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연구 범위는 평면적인 벽걸이 형태의 간접조명 디자인으로 설정하고, 조형적 시각으

53) 이은아(2017), 책가도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

54) 이동주(2013), 책가도(冊架圖)를 이용한 도제 벽걸이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

로 접근, 해석하여 현대의 책거리 조명을 제작하였다. 또한 책가도 도상의 현대적 변형 회화인 홍경택의 ‘서재’ 시리즈, 역사와 종교에 현대인의 대중문화를 대입하여 그리는 이지혜 작가의 ‘책가내외도’, 정지희(2016)의 민화를 소재로 한 주전자 조형 연구<sup>55)</sup>, 책거리의 조형적 요소에 내재되어 있는 소망, 염원, 동양적 자연관을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한 김송정 작가 등 4인의 작품 및 연구논문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상품 제작 방법으로는 솔리드 캐스팅<sup>56)</sup> 기법을 적용하고, 석고 가공으로 섬세한 장식을 표현하였다. 또한 다양한 색상 안료를 조합하여 채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품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세밀한 질감 표현과 부드러운 색감을 위해 1230℃에 산화 소성, 무유 소성을 하였다. 마무리로는 알맞은 크기로 재단한 나무를 기물 뒷면에 대고 LED 스트랩 조명을 부착하여 완성하였다. 그 결과, 조명의 빛을 통한 기물별 높낮이의 뚜렷한 선과 음영의 전달로 평면의 작품에 입체적인 공간감을 제시하였으며 간접조명의 따뜻한 감성을 연출하였다.<sup>57)</sup>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책가도의 전면 이미지의 조형 요소를 활용한 패턴·벽지·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의 평면디자인, 책가도의 기물 이미지를 활용한 석고나 도자 조형물의 입체디자인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유형의 문화적 소산인 책가도는 역사적, 예술적 및 학술적 가치<sup>58)</sup>를 조명하면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좋은 소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책가도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도출해내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소재로 문화상품에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자 한다.

55) 정지희(2016), 민화를 소재로 한 주전자 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56) 솔리드 캐스팅(solid casting)이란 석고 틀과 같은 몰드(mold)에 소지 슬립을 주입해서 도자 제품을 성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57) 신상아(2021), 민화 책거리 그림을 응용한 도자 조명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4.

58) 법제처,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r>.

### Ⅲ.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 및 문화상품에서의 활용

#### 1.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 1) 책갑의 의미 및 종류

종이와 책이 귀했던 조선 시대에는 책갑(冊匣), 촌장(儼裝), 배접(褙接), 서의(書衣)·질(帙)·협판(夾板) 등의 책가의, 책궤 등 책의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활용되었다(그림 Ⅲ-1).



책갑

책가의

책궤

<그림 Ⅲ-1> 책갑류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http://www.nfm.go.kr)

이 가운데 책갑(冊匣)은 책을 보존하기 위해 책의 크기에 맞게 만든 작은 상자나 집을 말한다. 이러한 책갑은 목갑(木匣), 지갑(紙匣)과 같이 재료에 따라 구분이 되었다. 책가도에 표현된 책갑의 대부분은 포갑으로 뽀뽀한 종이에 비단 천으로 배접하여 사면을 감싸고 메뚜기형 상아 단추로 여미는 형식으로 양옆 두 면이 트인 직육면체 형태의 관 모양이다.

촌장은 죽지(竹紙)나 면지(綿紙)로 만들어 서적의 책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강하기 위해 책장과 책장 사이에 책장의 크기 혹은 조금 더 큰 종이를 접어서 끼워두는 보존법이다. 품질이 좋은 저지(楮紙)로 만든 전적(典籍)의 책장은 책장 크기의 얇은 닥종이를 책장 뒷면에 풀로 붙이는 배접(裱接)으로 보강을 하였다.

서의·질·협판 등은 모두 책을 싸두는 책가의와 같은 구실을 하는 책갑의 범주에 포함된다. 여러 책으로 이뤄진 질책(帙冊)이나 방책(方冊)을 일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두겹고 뽀뽀한 종지와 헝겊으로 덮어 짠 것을 서의(書衣) 혹은 서질(書帙)이라고 칭한다. 가느다란 대발을 곱게 장방형으로 엮은 후 비단으로 장식하여 여러 권의 권축장(卷軸裝)을 보전하기 위해 감싸는 것을 질(帙)이라고 한다. 협판(夾板)은 포배장(包背裝), 선장(線裝) 등의 방책 보존법으로 책 크기보다 조금 큰 두 개의 얇은 나무판 사이에 책을 넣고 두겹고 납작한 끈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sup>59)</sup> 또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귀한 책을 오동나무 책갑에 넣어 보관하기도 했는데 책갑 안을 두세 칸으로 나누고 전면에는 책명을 새긴 한 짝의 문을 만든 큰 책갑도 있으며, 여러 권으로 된 한 질의 책은 책갑 수량이 여덟이나 아홉까지 되었다.<sup>60)</sup>

왕실의 경우 의례의 기록인 어책(御冊)이나 교명(敎命)을 봉과(封裹) 할 때 책갑이 많이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왕실의 의례용 인장인 보인(寶印)과 함께 제작되는 문서인 어책은 왕과 왕비 그리고 대비의 경우 옥책(玉冊)으로, 왕세

59) 천혜봉(2006), 한국서지학, 민음사, pp.602-603.

60) 차용준(2003), 전통예능문화의 이해. 제5권, 전주대학교출판부, p.231.

자와 세자빈의 경우 죽책(竹冊)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위한 책갑이 제작되었다. 잘 다듬은 길쭉한 막대 모양의 옥이나 대나무에 글을 새긴 후 이를 5-6개씩 나란히 묶어 판 형태로 만든 후 여러 장의 판을 경첩이나 고리로 엮어, 판과 판 사이에 보호재 역할을 하는 격유보(隔襦褌)를 대고 보자기나 갑으로 마무리를 하였다.<sup>61)</sup> 또한 왕실에서는 수량이 많은 책이나 문서는 책갑, 책함, 책궤 등에 보관하고 수량이 적고 첩장(帖裝) 형태의 문서는 첩갑(帖匣)이라고 하여 휴대가 용이하고 열람이 편리하도록 종이와 비단으로만 제작하여 보관하였다. 왕실의 책갑은 펼친 상자 형태의 두꺼운 종이에 화려한 무늬의 비단 천을 배접한 포갑(包匣)과 두 개의 오동나무 판 사이에 책을 넣고 끈으로 묶어 보관하는 협판 형태의 포갑이 유물로 전해진다.<sup>62)</sup>(그림 III-2)



〈그림 III-2〉 순종어제 책갑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61) 국립고궁박물관(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전시도록, p.160.

62) 국립고궁박물관(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전시도록, pp.100-106.

## 2) 책가도에 표현된 책갑

책가도에는 어떤 기물보다도 서책이 두드러지게 많이 그려져 있다. 책가도가 책 위주의 그림이다 보니 당연한 것이다. 다만 날권의 책은 거의 그려지지 않고 두 권에서 다섯 권 정도의 서책을 하나로 모아 놓은 포갑들이 등장한다. 포갑에 들어있지 않은 서책의 경우 첩첩이 쌓아 올린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포갑에 비해 적은 수량이다(그림 III-3). 이는 조선의 서책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책들에 비해 큰 크기이다. 또한 선장(線裝)이라는 제본 방식이 한국만의 특징으로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 선장이란 전통 책 제본 방식의 하나로 책을 실로 튼튼하게 묶은 것이다. 이는 반으로 접은 인쇄된 본문 종이를 순서에 맞게 모은 후 앞뒤 표지를 하고 책의 등쪽에 5개의 구멍을 뚫어 튼튼하게 꼬아 묶는 제본 방식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보편적으로 구멍을 4개 뚫는데 많게는 6개나 8개도 있다. 한국만이 구멍을 5개로 뚫어 고유한 특징을 보인다.<sup>63)</sup> 이에 ‘오침안정법’<sup>64)</sup>이라는 호칭이 생겨났다(그림 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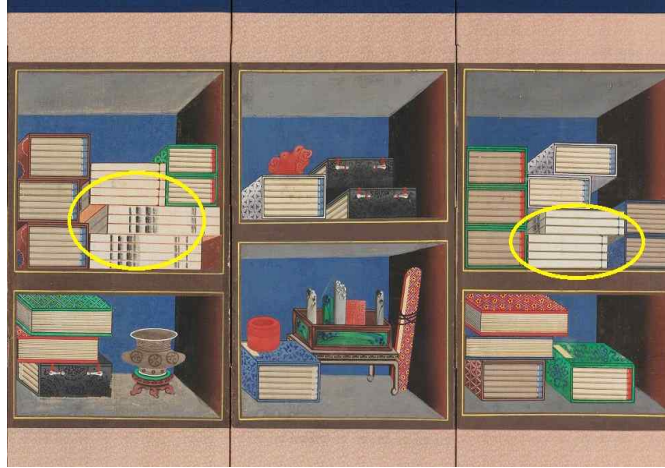
조선은 학문을 중시하고 문치주의를 지향했던 만큼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도 서책에 귀중한 내적 가치를 부여했다. 또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외형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책갑이나 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장황(裝潢)에 세심한 공을 들였다. 지금과 다르게 책의 제본과 장황은 소장자가 직접 하였다. 나라에서 하사한 책도 제본이 안된 경우가 있었다. 『세종실록』 22년 8월 10일자에는 ‘주자소에서 인쇄하여 나눠 준 책을 마음을 써서 장황(粧潢)하지 아니하여 책이 헐게 되니 3개월 내에 장황하라<sup>65)</sup>는 명을 세종이 승정원에 직접 내린 기록이 있다.

63) 강명관(2014),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천년의 상상, p.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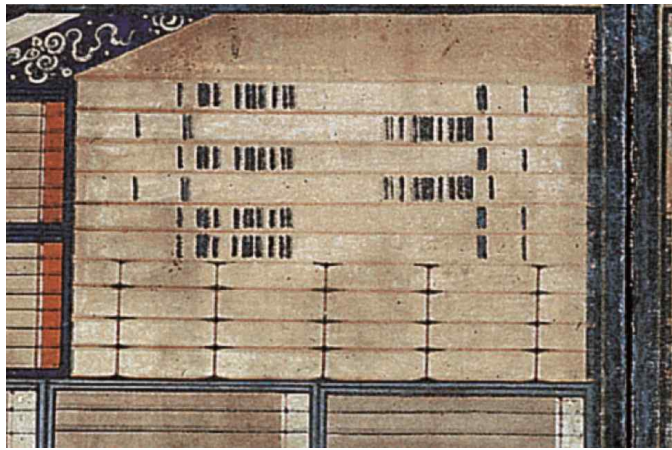
64) 오침안정법이라는 용어는 한학자 이가원(李家源) 선생이 1980년대 무렵 한국식 전래제본 명칭으로 지었다. <https://ko.dict.naver.com/#/userEntry/koko/fdc4173b77aee45ac787f4b315ff06bc> (검색일: 2022. 03, 08)

65) 한국고전번역DB, 『世宗實錄』 世宗 22年 8月 10日.

鑄字所模印書籍, 頒賜各品, 其受賜者不用心粧潢, 以致損毀. 自今令限以三月粧潢呈本院, 受宣



〈그림 III-3〉 조선 서책 부분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그림 III-4〉 오침안정법  
출처: 한국의 채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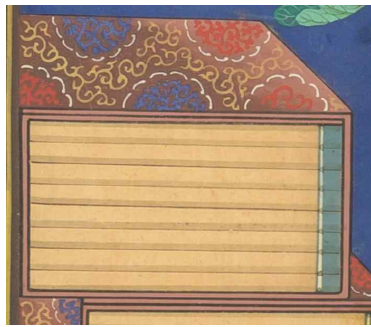
---

賜之記, 永以爲式.

이는 책가도에 표현된 책갑에서도 드러나는데 귀하고 소중한 물건으로서 서책을 포장(包裝)하는 형태의 책갑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책가도에서 서책을 보존하는 책갑의 형태를 살펴보면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중국의 서책으로 추정되는 크기가 작은 책들을 감싸는 포갑(그림 III-5), 두 번째는 책의 앞·뒤 겉장만 장황을 하는 화첩(그림 III-6), 세 번째는 원통형의 두루마리 서책인 권축장(卷軸粧)이다(그림 III-7).

궁중 화원들이 그린 화격이 높은 책가도는 실물을 보고 그대로 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책가도에 그려진 책갑으로 당시의 책갑과 서적 표지를 유추해보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청의 문물들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책 역시 귀하게 여겨졌고 비단 또한 청으로부터 수입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책갑을 만드는 데 활용된 종이와 천은 조선의 것만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온 것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II-5> 포갑

출처: 서울공예박물관 [www.craftmuseum.seoul.go.kr](http://www.craftmuseum.seoul.go.kr)



<그림 III-6> 화첩

출처: 서울공예박물관 [www.craftmuseum.seoul.go.kr](http://www.craftmuseum.seoul.go.kr)



<그림 III-7> 권축장

출처: 서울공예박물관 [www.craftmuseum.seoul.go.kr](http://www.craftmuseum.seoul.go.kr)

## 2. 책가도에 나타난 책갑 문양

### 1) 사례 1의 장한중 필 책가도

현재까지 밝혀진 선행연구들에서 현전(現傳)하는 가장 빠른 시기의 책가도는 장한중(張漢宗, 1768~1815)의 책가도로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장한중은 정조 대(1777-1800)와 순조 대(1800-1834)에 활약한 궁중 화원으로 그의 생몰년도로 보아 사례 1의 책가도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쌍 ‘희(囍)’ 문자(文字) 무늬가 있는 장막 안의 책가를 표현하여 장막 책가도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책가 아랫단에 문갑을 그려 넣고 두 번째 폭 문갑의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서책을 표현하여 작품 곳곳에 재미 요소들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장한중은 물고기, 새우, 조개 등을 그리는 어해도에 뛰어난 화원답게 책가 중앙의 제4폭과 제5폭에도 문갑을 그리고 각각 연꽃과 새우 그림으로 문갑을 장식하였다.

제4폭과 제5폭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형태이며 3단 혹은 4단으로 높낮이에 변화를 주어 책가를 구획하였다. 책가 내부 윗면과 아랫면은 회색, 배면은 갈색, 옆면은 붉은 기가 도는 갈색으로 채색하였다. 모든 면은 균일하게 한 가지 색으로 채색한 반면 책가 내부 옆면은 안쪽 1/4 지점부터 어둡고 짙게 채색하여 음영법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이 책가도는 그림의 크기가 세로 164.3cm, 가로 366.4cm로 종이에 채색하여 8폭의 연폭 병풍 형태로 제작되었다. 제작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여덟 번째 폭 책가 하단의 도장 함에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진 인면(印面)을 그려 넣었는데 이를 은인(隱印)이라고 한다. 장한중의 인장은 정방형의 방인(方印)<sup>66)</sup>으로 90° 왼쪽으로 눕혀진 모양새이며 왼쪽 아래에 ‘張’ 그 옆쪽에

‘漢’ 그리고 왼쪽 위에 ‘宗’ 그 옆으로 ‘印’ 이 새겨져 있다<sup>67)</sup>(그림 III-8).

책가도(그림 III-9)의 책감으로는 59개의 포갑, 5개의 화첩, 13개의 권축장이 그려져 있다. 이 가운데 문양 확인이 불가능한 포갑은 25개, 화첩은 1개였다.

포갑에는 기하문이 가장 많은데 마름모무늬에 작은 꽃을 그려 넣은 복합 형태의 마름꽃무늬가 6개, 직선과 곡선만으로 이뤄진 격자무늬와 마름모무늬가 7개, 둥근 원을 연이어 겹쳐서 만들어지는 연환무늬(칠보문의 ‘윤보문’으로 분류하기도 함)가 8개 그려져 있었다. 그다음으로 식물문 중 동그란 원 형태로 넝쿨무늬를 채운 둥근 넝쿨무늬가 6개, 커다란 꽃이 공백 없이 전체적으로 그려진 큰 꽃무늬가 2개였다. 기물문으로는 다복을 상징하는 서각보(犀角寶)가 그려진 보배무늬가 3개 그려져 있고, 자연산수문의 구름무늬가 실 조각 모양의 사운(絲雲) 형태로 2개가 확인되었다.

화첩은 기하문의 마름꽃무늬가 1개였다. 권축장은 넝쿨무늬 7개와 둥근 넝쿨무늬 1개의 식물문이 8개로 가장 많으며, 연환무늬와 마름모무늬의 기하문이 4개, 서각보가 그려진 보배무늬 기물문이 1개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포갑에서의 둥근 넝쿨무늬는 바탕 무늬가 없는 단독무늬이나 권축장의 둥근 넝쿨무늬는 기하문이 바탕 전체에 전개되는 형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해보면 사례 1 책가도의 책감 문양은 확인 가능한 51개 중 기하문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식물문 19개, 기물문 4개, 자연산수문 2개의 순이었다(표 III-1).

66) 도장의 모양에 따라 방인(方印), 반통인(半通印), 원인(圓印) 등으로 구분하는데, 정방형은 방인(方印), 세로로 긴 직사각형은 반통인(半通印), 원형태는 원인(圓印)이라고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32854&cid=50360&categoryId=50360> (검색일 2022. 04. 02)

67) 박주현(2021), 서양화법을 품은 조선의 그림 책가도, 에스엔아이팩토리, p.149.



〈그림 III-8〉 ‘張漢宗印’ 인면  
출처: 경기도박물관 [www.musenet.ggcf.kr](http://www.musenet.ggcf.kr)



〈그림 III-9〉 장한중 필 책가도  
출처: 경기도박물관 [www.musenet.ggcf.kr](http://www.musenet.ggcf.kr)

〈표 III-1〉 장한중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6	1		7	26
		연환무늬	8		2	10	
		격자무늬	1			1	
		마름모무늬	6		2	8	
	식물문	둥근 넝쿨무늬	6		1	7	19
		넝쿨무늬		3	7	10	
		큰꽃무늬	2			2	
	기물문	보배무늬	3		1	4	4
	자연산수문	구름무늬	2			2	2
	확인 불가			25	1		26
합계			59	5	13	77	

2) 사례 2의 팔각 책가도

개인 소장인 팔각 책가도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그려진 작가 미상의 그림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정의 근거로는 윤진영(2014)의 연구에서 논의된 선묘(線描) 기법의 유무(有無)로 책가도 양식의 발전기인 제2기와 양식의 완숙기인 제3기에 해당이 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선묘란 대상의 윤곽선을 그린 후 채색하여 입체감을 나타내는 표현 기법을 말한다. 이 책가도는 장한중의 책가도와 같이 서양화법의 점진적 수용의 단계로, 대상의 윤곽선을 묘사하는 선묘(線描) 기법이 뚜렷이 나타난다. 반면 더 발전된 서양화법을 수용한 책가도에는 면과 면의 대비로만 입체감이 표현되어 있다<sup>68)</sup>

68) 윤진영(2014), 조선후반기 궁중 책가도의 편년적(編年的) 고찰, 민화연구 3, pp.45-59.

<그림 III-10>을 보면 왼쪽(장한중 필 책가도)은 제작 시기가 빠른 초기 책가도로 대상의 형태에 외곽을 선으로 그려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오른쪽(이응록 필 책가도)에서는 기물에 면으로 음영을 표현해서 입체감을 나타냈다.

또한 사례 2의 팔각 책가도는 8쪽의 연풍 병풍 형태로 그려졌는데 제1쪽과 제8쪽은 정팔각형의 격자창(格子窓)을 표현하고, 제2쪽에서 제7쪽까지 여섯 쪽에 걸쳐서는 직팔각 형태의 책가를 그려 넣었다. 책가의 구획은 장한중의 책가 구획과 상당 부분 유사하고, 책가 내부 면의 채색 색상과 방식 또한 비슷하다. 단지 책가 내부의 배면 색과 옆면 색을 동일한 갈색으로 채색하였고 옆면의 어두운 색상 표현이 1/2지점 정도로 많아졌다. 그림의 크기는 세로 139.3cm, 가로 369.0cm이다.

<그림 III-11>의 책가도에는 58개의 포갑, 4개의 화첩, 10개의 권축장이 그려져 있으며, 이 중 포갑 25개와 권축장 5개에서 문양 확인이 가능하였다. 문양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격자무늬, 마름모무늬의 복합문양, 연환무늬 등의 기하문이 포갑 14개, 권축장 4개에서 나타났다.

포갑에서는 넝쿨무늬를 원 형태로 표현하는 둥근 넝쿨무늬 3개와 큰 꽃무늬 1개 등의 식물문이 확인되었다. 서각, 영지와 같은 보배무늬 기물문이 포갑 3개와 권축장 1개에서 확인되었고 사운 형태의 구름무늬로 자연산수문이 포갑에 4개 그려져 있었다.

특이한 점은 큰 꽃무늬 식물문은 본 연구의 사례 중 사례 1의 장한중 필 책가도와 사례 2의 팔각 책가도에서만 확인되었다(그림 II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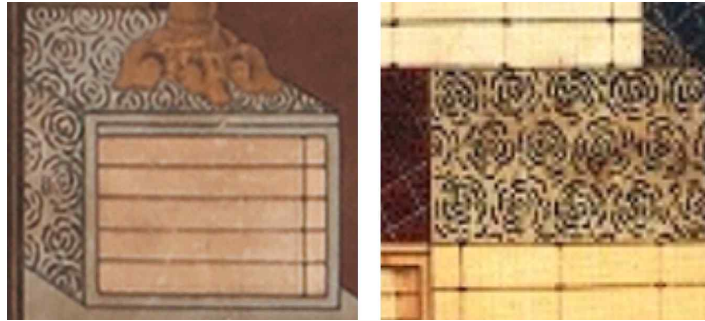
종합하면 사례 2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30개 중 기하문 18개, 식물문 4개, 기물문 4개, 자연산수문 4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2).



〈그림 Ⅲ-10〉 선묘법의 유(좌)와 무(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emuseum.go.kr](http://www.emuseum.go.kr)



〈그림 Ⅲ-11〉 팔각 책가도  
출처: 한국의 채색화



〈그림 III-12〉 장한중 필 책가도의 큰 꽃무늬(좌)와  
팔각 책가도의 큰 꽃무늬(우)

출처: (좌)경기도박물관 [www.musenet.ggcf.kr](http://www.musenet.ggcf.kr) (우)한국의 채색화

〈표 III-2〉 팔각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연환무늬	6			6	18
		격자무늬	3			3	
		마름모무늬	5		4	9	
	식물문	둥근 넝쿨무늬	3			3	4
		큰꽃무늬	1			1	
	기물문	보배무늬	3		1	4	4
	자연산수문	구름무늬	4			4	4
	확인 불가			33	4	5	42
합계			58	4	10	72	

### 3) 사례 3의 이형록 필 책가도

개인 소장인 이형록 필 책가도는 궁중 화원인 이형록(李亨祿, 1808-1883)의 초기 작품이다. 이형록은 책가도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영조 연간 화원인 이성린(李聖麟, 1716-1777)의 증손자이다. 이정은(2017)의 ‘李亨祿과 19세기 조선 화단 연구’에 의하면 이성린은 1773년(영조 49) 연행(燕行)에 참여하였는데 그곳에서 체험한 서양화법이 자연스럽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어 책가도의 화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아들 이종현(李宗賢, 1748-1803), 손자 이윤민(李潤民, 1774-1832) 그리고 증손자 이형록까지 책가도 전문 화원으로의 연원은 이성린으로 비롯되었다.<sup>69)</sup>

이형록은 책가도 양식의 완숙기인 50여 년간 왕성한 활동으로 여러 점의 책가도를 그렸는데, 그의 두 번의 개명(改名)은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첫 번째 개명은 그의 나이 57세인 1864년(고종 1)에 이응록(李膺祿)으로, 두 번째 개명은 65세인 1871년(고종 8)에 이택균(李宅均)으로 이루어졌다. 사례 3의 책가도는 개명 전(前)인 이형록 시절로 1864년 이전의 작품이다.<sup>70)</sup>

이 책가도의 크기는 세로 139.6cm, 가로 421.2cm로 종이에 채색하여 연폭의 8폭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각 폭마다 3단으로 책가를 나누고 1폭과 8폭을 제외하면 좌우대칭으로 책가가 그려졌다. 책가 내부의 윗면과 아랫면은 회색, 배면과 옆면은 갈색으로 채색하였으며 옆면의 1/2지점부터 어둡고 질게 표현하였다. 다른 책가도에 비해 서적류가 많이 그려져 있어 책갑의 수가 96개나 확인된다.

제8폭의 하단 도장함에는 정방형 인면이 보이게 도장이 남아 있는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李亨祿印’이 전서체로 새겨져 있다. 도장 글

69) 이정은(2017), *李亨祿과 19세기 조선 화단*,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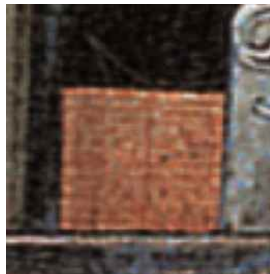
70) 윤진영(2014), *조선후반기 궁중 책가도의 편년적(編年的) 고찰*, 민화연구 3, p.52.

씨가 붉은색으로 도드라지게 찍히는 주문방인(朱文方印)<sup>71)</sup>으로 양각인 글자 부분을 옅은 붉은색으로 채색하고 좌우 반대로 표현하였다<sup>72)</sup>(그림 III-13).

<그림 III-14>에 제시한 책가도의 책감으로는 포갑 77개, 화첩 9개, 권축장 10개로 총 96개가 그려져 있었고, 그중 46개에서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34개의 포갑에서 삼각형무늬, 마름꽃무늬 등의 기하문이 22개였고 전보, 서각, 보검, 범라와 같은 보배무늬 기물문이 11개였다. 연화만초무늬 형태의 넝쿨꽃무늬 식물문은 1개가 확인되었다. 화첩은 기하문 1개와 넝쿨무늬 식물문이 3개 확인되었다. 권축장에서는 마름꽃무늬 기하문 3개, 국화무늬가 함께 그려진 넝쿨꽃무늬와 둥근 넝쿨무늬 등의 식물문 4개 그리고 보배무늬 기물문 1개가 그려져 있었다. 또한 권축장의 둥근 넝쿨무늬는 기하문의 바탕 무늬와 함께 표현되어 있었다.

종합하면 사례 3 책가도의 책감 문양은 확인 가능한 46개 중 기하문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기물문 12개, 식물문 8개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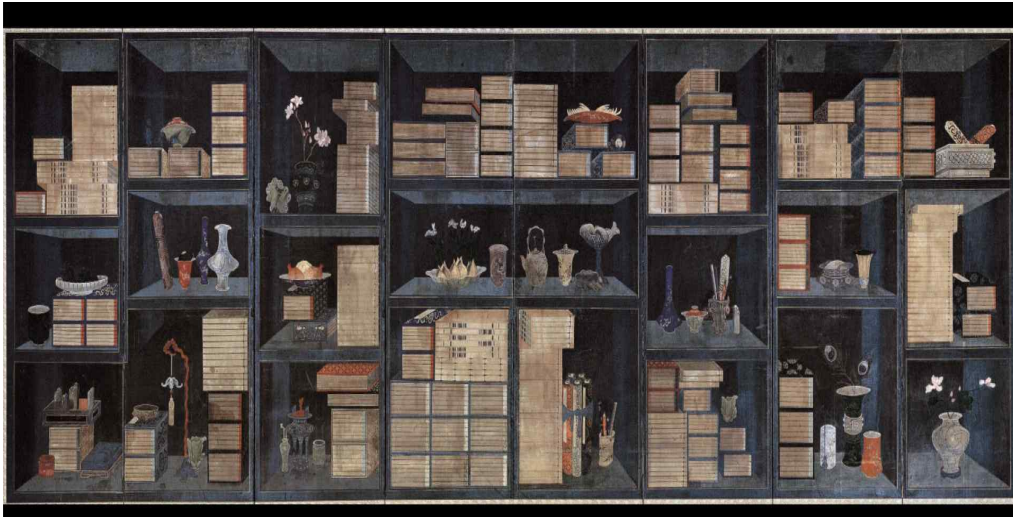


<그림 III-13> ‘李亨祿印’ 인면

출처: 개인 소장

71) 주문방인(朱文方印)은 글씨나 그림을 양각으로 새겨 종이에 찍었을 때 붉은색으로 찍히는 정방형의 도장을 말한다. 반대로 음각으로 새겨 글씨나 그림이 흰색으로 보여지는 것을 백문방인(白文方印)이라 한다. 도장의 모양에 따라 방인(方印), 반통인(半通印), 원인(圓印) 등으로 구분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32854&cid=50360&categoryId=50360> (검색일 2022. 04. 02)

72) 박주현(2021), 서양화법을 품은 조선의 그림 책가도, 에스앤아이팩토리, p.174.



〈그림 Ⅲ-14〉 이형록 필 책가도  
출처: 개인 소장

〈표 Ⅲ-3〉 이형록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2	1	3	6	26
		삼각형무늬	20			20	
	식물문	녕쿨꽃무늬	1	3	2	6	8
		등근녕쿨+기하무늬			2	2	
	기물문	보배무늬	11		1	12	12
	확인 불가			43	5	2	50
합계			77	9	10	96	

#### 4) 사례 4의 이응록 필 책가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응록 필 책가도는 앞서 기술한 대로 1864년 57세의 이형록이 이응록으로 첫 번째 개명을 한 후의 작품이다. 두 번째 개명 시기가 1871년이므로 제작 시기를 1864년과 1871년의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의 크기는 세로 152.7cm, 가로 351.8cm로 종이에 채색한 10폭 연폭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이 책가도는 책가의 배면 색이 여타 다른 책가도에 표현되지 않은 짙은 녹색으로 채색되었다. 짙은 녹색 배면 색은 갈색의 책가, 옅은 미색의 서적류, 마치 포인트를 준 듯 각 폭마다 기물에 채색된 붉은색의 조화로 채색만으로도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세련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책가는 좌우 대칭형으로 3단과 4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계단식 형태의 책가 표현으로 개방적인 공간감을 준다(그림 III-15). 이 책가도(그림 III-16) 역시 아홉 번째 폭 중간 단의 도장함에 전서체의 ‘李鷹祿印’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새겨진 주문방인으로 남아 있다.

이형록 시절의 책가도보다 서적류의 비율이 낮아졌음에도 포갑 72개, 화첩 10개, 권축장 2개로 총 84개가 그려져 있고 그중 포갑 25개, 화첩 3개, 권축장 2개에서 문양 확인이 가능했다. 삼각형무늬와 마름꽃무늬 기하문이 포갑 17개, 화첩 2개, 권축장 1개 그려져 있었다. 벼슬이나 녹봉을 상징하는 화보(畫寶), 복을 상징하는 전보와 서각보 등 보배무늬 기물문이 포갑에서만 6개 확인되었다. 둥근 넝쿨무늬 식물문은 포갑 2개, 권축장 1개에서 볼 수 있고, 화첩 2개에서는 꽃과 함께 그려진 넝쿨꽃무늬 식물문이 그려져 있다.

종합하면 사례 4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30개 중 기하문 20개, 기물문 6개, 식물문 4개의 순이었다(표 III-4).



〈그림 III-15〉 계단식 책가 구획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그림 III-16〉 이응록 필 책가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표 III-4〉 이응록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5	2	1	8	20
		삼각형무늬	12			12	
	식물문	녕쿨꽃무늬		1		1	4
		둥근 녍쿨무늬	2		1	3	
	기물문	보배무늬	6			6	6
	확인 불가			47	7		54
합계			72	10	2	84	

5) 사례 5의 이응록 필 책가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이 소장하고 있는 이응록 필 책가도는 종이에 채색한 8폭 연폭 병풍 형태로 제작되었다. 케이 블랙(Kay E. Black)과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에 의하면 현 상태는 병풍이지만 일본에서 각 폭을 분리해 족자로 표장(表裝)한 것을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응록 책가도(사례 4)를 참고하여 병풍으로 표장하였다고 한다.<sup>73)</sup>

‘李膺祿印’의 인면으로 보아 1864년에서 1871년 사이로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지만 사례 4와 사례 5의 책가도 사이에 전후를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3) 박주현(2021), 서양화법을 품은 조선의 그림 책가도, 에스앤아이팩토리, pp.175-176에서 재인용.

<그림 Ⅲ-17>의 책가도의 크기는 세로 164.5cm, 가로 271.2cm로 이응록(이형록, 이택균)의 책가도 중 세로의 길이가 가장 길다. 제4쪽과 제5쪽을 제외하고 좌우대칭으로 3단과 4단으로 책가를 구획하였다. 책가 내면의 윗면과 아랫면을 회색으로 채색하고 배면과 옆면은 갈색, 옆면 그라데이션(gradation) 표현은 다른 책가도와 대동소이하다.

제4쪽의 상단 도장함에 정방형의 방인이 아닌 위가 살짝 둥근 반통인(半通印) 형태의 인면이 있다. 이는 이응록의 다른 책가도와 마찬가지로 전서체의 주문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장황된 책갑류의 비율이 낮아졌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신 선장(線裝)으로 제본한 조선의 고서와 문방구 그리고 기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

책갑에서 포갑 45개 중 25개, 화첩 5개 중 3개 그리고 권축장은 3개 모두에서 문양 확인이 가능하였다. 삼각형무늬와 마름꽃무늬 기하문이 포갑 12개, 화첩 3개, 권축장 2개에서 나타나 가장 많이 표현되었다. 전보, 보검, 서각 등이 그려진 보배무늬 기물문이 포갑에서만 11개 확인되었다. 포갑 2개와 권축장 1개에서는 둥근 넝쿨무늬 식물문이 그려져 있었다.

종합해보면 사례 5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31개 중 기하문이 17개로 가장 많이 표현되었으며 다음으로 기물문 11개, 식물문 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Ⅲ-5).



〈그림 Ⅲ-17〉 이응록 필 책가도  
출처: 한국의 채색화

〈표 Ⅲ-5〉 이응록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4	3	1	8	17
		삼각형무늬	7			7	
		연환무늬	1		1	2	
	식물문	등근 넝쿨무늬	2		1	3	3
	기물문	보배무늬	11			11	11
	확인 불가			20	2		22
합계			45	5	3	53	

## 6) 사례 6의 운현궁00573 책가도

현재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운현궁00573 책가도는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昉應, 1820-1898)의 거처였던 운현궁(雲峴宮)의 서화(書畵) 유물 중 하나로 채색이나 기물의 묘사 등에서 궁중 화원의 책가도 형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작품이다. 이는 제작 시기가 19세기 후반, 좀 더 좁히면 186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2폭의 가리개 병풍 형태이다. 제작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책가 오른쪽 하단에 그려진 소라 모양의 술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술잔(그림 III-18)에는 ‘壽進寶酌(수진보작: 오래 살기를 기원하며 바치는 보배로운 술잔)’이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는데, 1865년(고종 2) 경복궁 중건 공사 중 석경루(石瓊樓)에서 출토된 ‘壽進寶酌(수진보작)’이라고 새겨진 동제(銅製) 보기(寶器)의 발견으로 궁중 화원이 그려서 운현궁에 장식했을 가능성이 유추되고 있다.<sup>74)</sup>

수진보작기(壽進寶酌記)에 따르면 고종은 수진보작의 발견을 대원군의 축수를 의미하는 상서로운 일로 보고, 제학들에게 첩으로 만들도록 명하였다.<sup>75)</sup> 그 명첩은 비단 첩장과 협판 첩장으로 만들어졌으며 명첩에는 수진보작기(壽進寶酌器)의 그림과 명첩 찬술 배경 등을 기술하였다. 2폭 가리개 병풍이지만 한 폭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병풍의 세로 길이가 212cm나 된다. 그림 크기는 세로 174.7cm, 가로 120.2cm로 각 폭을 4단으로 나누고 중앙에 손잡이가 달린 작은 서랍을 2개씩 그려 넣었다.

책가도(그림 III-19)의 책가 내면의 채색은 윗면과 아랫면은 회색, 배면은 갈색, 옆면은 갈색톤의 짙은 회색으로 그리데이션 없이 균일하게 칠하였다. 또한 책갑 등의 서책류와 기물류를 분리하여 각단에 배치하였는데, 1폭과 2

74) 서울역사박물관(2008), 운현궁 생활유물Ⅶ, 서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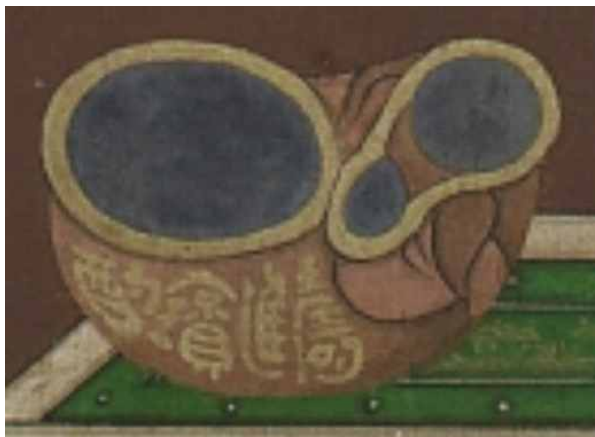
75) 『승정원일기』 고종 2년(1865) 5월 4일(戊戌).

서울역사박물관(2008), 운현궁 생활유물Ⅶ, 서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p.161에서 재인용.

쪽을 번갈아 배치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궁중 책가도답게 비단에 채색이 되었다.

이 책가도에는 49개의 책감이 그려져 있는데 포갑은 39개 중 18개, 화첩은 6개 중 1개, 그리고 권축장은 확인 불가 없이 4개 모두에서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각형무늬, 마름꽃무늬, 마름모무늬 등의 기하문이 포갑 8개와 화첩 1개에서 표현되었다. 서각 위주의 보배무늬 기물문은 포갑 3개와 권축장 2개에서 확인되었다. 식물문은 넝쿨무늬 4개와 사군자 중 대나무무늬 1개, 과일무늬 1개가 포갑에만 그려졌고 넝쿨꽃무늬는 포갑 1개와 권축장 2개에 그려져 있다.

종합하면 사례 6 책가도의 책감 문양은 확인 가능한 23개 중 기하문 9개, 식물문 9개, 기물문 7개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6).



〈그림 III-18〉 수진보작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go.kr](http://www.museum.seoul.go.kr)



<그림 III-19> 운현궁000573 책가도

출처: 서울 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go.kr](http://www.museum.seoul.go.kr)

<표 III-6> 운현궁000573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2			2	9	
		마름모무늬	2	1		3		
		삼각형무늬	4			4		
	식물문	녕쿨무늬	4			4	9	
		녕쿨꽃무늬	1		2	3		
		과실무늬	1			1		
		사군자무늬	1			1		
	기물문	보배무늬	3		2	5	5	
	확인 불가			21	5		26	26
	합계			39	6	4	49	

## 7) 사례 7의 운현궁00574 책가도

운현궁00574 책가도(그림 III-20) 역시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운현궁 서화 유물 중 하나로 사례 6의 책가도처럼 2폭의 가리개형 병풍으로 비단에 채색한 것이다.

그림의 크기는 세로 121.5cm, 가로 100.0cm로 각 폭마다 다르게 책가를 구획하였는데, 오른쪽(제1폭)은 중간 단에 수직면을 추가한 계단형으로 3단으로 나누고 왼쪽(제2폭)은 수평으로 3단으로 나누었다.

책가 내부의 윗면과 아랫면은 옅은 회색, 배면은 옅은 청색으로 균일하게 채색하였고 옆면은 깊이에 따라 짙고 어두운 색상으로 칠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사례 6의 책가도에 비해 기물의 종류와 수량이 현저히 적은 반면 서책류 특히 조선의 고서가 많이 그려져 있어 단순하지만 부드러운 색상으로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책가도에는 포갑 16개, 화첩 4개, 권축장 2개가 그려져 있다. 문양 확인은 포갑에서 7개, 화첩 1개, 권축장 2개로 총 10개에서 가능하였다. 삼각형무늬 기하문은 포갑에서 2개, 마름꽃무늬는 화첩과 권축장에서 각각 1개씩 확인되었다. 영지, 서각 등의 보배무늬 기물문은 책갑에서만 2개 확인되었다. 식물문은 포갑에서 둥근 넝쿨무늬 2개, 보상화무늬 1개를 볼 수 있고, 권축장 1개에서는 연화만초무늬 형태의 넝쿨꽃무늬가 비교적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종합해보면 사례 7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10개 중 기하문 4개, 식물문 4개, 기물문 2개의 순이었다(표 III-7).



〈그림 III-20〉 운현궁000574 책가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go.kr

〈표 III-7〉 운현궁000574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1	1	2	4
		삼각형무늬	2			2	
	식물문	등근 넝쿨무늬	2			2	4
		넝쿨꽃무늬			1	1	
		보상화무늬	1			1	
	기물문	보배무늬	2			2	2
	확인 불가			9	3		12
합계			16	4	2	22	

## 8) 사례8의 전주68671 책가도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주68671 책가도는 10폭 병풍으로 책가뿐 아니라 하단의 문갑, 중간의 서랍, 상단의 여단이 수납장을 그려 넣은 것이 특징이다. 제4폭과 제5폭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형태이며 문갑 위로 높낮이가 다른 3단으로 책가를 구획하였다.

책가 내면의 윗면과 아랫면은 회색, 배면은 황토색으로 채색하였고 옆면은 붉은 기가 많은 갈색으로 칠해져서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이 드는 책가도이다. 옆면 안쪽으로 어둡고 질게 칠한 부분도 보인다. 특이점은 제3폭의 하단 책갑 위에 소라 모양의 수진보작과 같은 술잔이 그려져 있다. 서양화법의 적용 정도를 보면 앞선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나 수진보작과 유사한 기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1865년 이후로 추정된다. 책가도의 크기는 세로 150.0cm, 가로 380.0cm로 종이에 채색하였다. 또한 제10폭 책가 하단에 작가를 특정할 수 있는 인면(印面)이 있어 향후 검토를 통해 제작자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II-21>의 책가도에는 59개의 포갑, 2개의 화첩, 18개의 권축장이 그려져 있는데 포갑 19개, 화첩 2개, 권축장 4개는 문양 확인이 불가능하다. 포갑에서는 둥근 넝쿨무늬 10개의 식물문과 서각보가 그려진 보배무늬 기물문 3개가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문양은 기하문으로 크고 작은 둥근 원을 연이어 겹친 연환무늬, 마름모무늬, 십자무늬, 마름꽃무늬 등이 단일 혹은 복합문으로 모두 23개가 있었다. 또한 포갑에 자연산수문으로 실 조각 형태의 사운(絲雲) 구름무늬가 4개 그려졌다. 2개의 화첩은 나무결 무늬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협판 형태로 추정되므로 확인 불가로 분류하였다. 18개의 권축장 중 확인 불가 또는 무지인 4개를 제외하면 마름모무늬, 십자무늬, 귀갑무늬 등의 기하문 6개, 둥근 넝쿨무늬 2개의 식물문과 서각보가 그려진

보배무늬 기물문 2개, 실 조각 형태의 사운(絲雲) 구름무늬 자연산수문이 4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사례 8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54개 중 기하문이 29개, 식물문 12개, 자연산수문 8개, 기물문 5개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



<그림 III-21> 전주68671 책가도

출처: 국립전주박물관 [www.jeonju.museum.go.kr](http://www.jeonju.museum.go.kr)

<표 III-8> 전주68671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3			3	29
		연환무늬	10			10	
		마름모+십자무늬	8		3	11	
		귀갑+십자무늬	2		2	4	
		빗금무늬			1	1	
	식물문	등근 넝쿨무늬	10		1	11	12
		등근넝쿨+기하무늬			1	1	
	기물문	보배무늬	3		2	5	5
	자연산수문	구름무늬	4		4	8	8
			확인 불가	19	2	4	25
합계			59	2	18	79	

## 9) 사례 9의 이택균 필 책가도

서울공예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형록의 두 번째 개명인 이택균의 책가도는 1871년 이후의 작품이다. 그림의 크기는 세로 151.5cm, 가로 408.4cm로 비단에 채색하였으며 10폭의 연폭 병풍 형태이다. 책가는 제5폭과 제6폭, 제4폭과 제7폭이 대칭이고 3단이나 4단으로 구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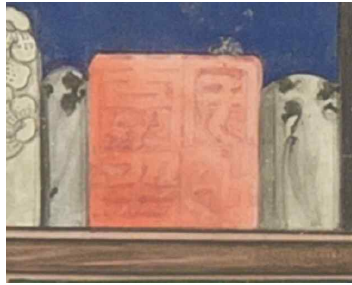
책가 내부의 윗면과 아랫면은 회색, 옆면은 갈색으로 그라데이션 채색하였으며 배면은 경쾌한 느낌의 짙은 청색으로 채색하였다. 윤진영(2014)은 책가도의 편년에 있어 변용과 퇴조기인 제4기의 특징으로 책가 내부의 배면 색이 갈색에서 청색으로 바뀐 현상을 새로운 경향으로 꼽았다. 다시 말해 청색 배경의 책가도 출현은 주목할 만하다. 경쾌한 느낌의 청색 배경 책가도는 신선한 호감을 주어 책가도 수요층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청색은 19세기 후반부터 수입된 서양 안료(顔料)인 아날린일 가능성이 높다.<sup>76)</sup>

제2폭의 두 번째 단 도장함의 인면에 ‘李宅均印’이 새겨져 있는데, 이형록, 이응록 시기의 인면과 유사하게 주문방인으로 표현되었다(그림 III-22).

<그림 III-23>의 책가도에는 책갑 101개 가운데 포갑 44개, 화첩 7개, 권축장 5개로 56개에서 문양 확인이 가능하였다. 삼각형무늬, 마름꽃무늬 등의 기하문이 포갑 25개, 화첩 3개, 권축장 2개에 그려져 있었다. 식물문은 등근 넝쿨무늬가 포갑 9개, 화첩 3개, 권축장 2개에서 확인되었다. 포갑에서 넝쿨꽃무늬를 2개 볼 수 있었고 보상화와 전보무늬가 그려진 보배무늬 기물문 8개가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사례 9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56개 중 기하문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물문 16개, 기물문 8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9).

76) 윤진영(2014), 조선후반기 궁중 책가도의 편년적(編年的) 고찰, 민화연구 3, p.56.



<그림 Ⅲ-22> ‘李宅均印’ 인면  
출처: 서울공예박물관 [www.craftmuseum.seoul.go.kr](http://www.craftmuseum.seoul.go.kr)



<그림 Ⅲ-23> 이택균 필 책가도  
출처: 서울공예박물관 [www.craftmuseum.seoul.go.kr](http://www.craftmuseum.seoul.go.kr)

〈표 III-9〉 이택균 필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13	4	3	20	32
		삼각형+연환무늬	12			12	
	식물문	등근 넝쿨무늬	9	3	2	14	16
		넝쿨꽃무늬	2			2	
	기물문	보배무늬	8			8	8
	확인 불가			44	1		45
합계			88	8	5	101	

10) 사례10의 고궁6499 책가도

고궁6499 책가도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6폭 연폭의 병풍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비단에 채색하였다. 책가 내부의 배면 색상이 청색으로 19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의 크기는 다른 책가도에 비해 세로 길이가 상당히 짧다. 세로 74.5cm, 가로 294.1cm로 각 폭마다 2단으로 책가를 구획하였다. 책가 내부의 윗면과 아랫면은 회색, 옆면은 갈색 그라데이션으로 채색하였다. 책가의 모든 투시선이 한쪽 방향을 향하는 것이 특징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거의 모든 기물의 색상이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으로 채색한 점은 책가의 투시선과 연동해볼 때 빛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형록(이응록, 이택균)의 책가도 기물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화격으로 보아 궁중 화원이 그린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sup>77)</sup>

이 책가도(그림 Ⅲ-24)에는 30개의 포갑, 2개의 화첩, 5개의 권축장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포갑은 13개에서만 문양 확인이 가능하였다.

마름꽃무늬, 삼각형무늬, 연환무늬 등의 기하문이 포갑 10개, 화첩 2개, 권축장 4개에서 확인되었다. 둥근 넝쿨무늬 식물문이 포갑 2개, 권축장 1개에 그려져 있으며 보배무늬 기물문이 포갑에서 1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사례 10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20개 중 기하문 16개, 식물문 3개, 기물문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Ⅲ-10).



〈그림 Ⅲ-24〉 고궁6499 책가도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77) 박주현(2021), 서양화법을 품은 조선의 그림 책가도, 에스앤아이팩토리, pp.154-155.

<표 III-10> 고궁6499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7	2	3	12	16
		삼각형+연환무늬	3		1	4	
	식물문	등근 넝쿨무늬	2		1	3	3
	기물문	보배무늬	1			1	1
	확인 불가		17			17	17
합계			30	2	5	37	

11) 사례 11의 고궁6500 책가도

고궁6500 책가도는 앞의 사례 10의 책가도와 같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연폭 6폭의 병풍 책가도로 비단에 채색하였다. 그림의 크기는 세로 70.4cm, 가로 289.4cm이다. 책가는 2단으로 구획하였고, 한쪽 방향으로 투시선과 광원이 설정된 점은 사례 10의 책가도와 유사한 형식이다.

특이한 점은 제2폭의 하단에 인면이 보이는 도장이 남아 있는데 화원의 이름이 아닌 ‘壽福康寧(수복강녕)’이 새겨져 있다(그림 III-25). 주문방인으로 보이며 왼쪽 위에 ‘壽’, 그 아래에 ‘福’, 오른쪽 위에 ‘康’, 오른쪽 아래에 ‘寧’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장수하고 복되며 건강하고 평안함’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새긴 것은 왕실을 위해 제작되었음을 짐작케 한다.<sup>78)</sup>

78) 박주현(2021), 서양화법을 품은 조선의 그림 책가도, 에스앤아이팩토리, p.154

<그림 III-26>의 책가도에서는 포갑 42개 중 24개, 화첩 4개 중 3개, 권축장 1개에서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각형무늬, 연환무늬, 마름꽃무늬 등의 기하문이 포갑 10개, 화첩 3개, 권축장 1개에서 나타나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둥근 넝쿨무늬 4개와 넝쿨꽃무늬 1개로 식물문 5개, 영지와 전보 등의 보배무늬 기물문 9개가 포갑에서만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사례 11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28개 중 기하문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물문 9개, 식물문 5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11).



<그림 III-25> ‘壽福康寧’ 인면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그림 III-26〉 고궁6500 책가도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표 III-11〉 고궁6500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2	3	1	6	14
		삼각형+연환무늬	8			8	
	식물문	동근 넝쿨무늬	4			4	5
		넝쿨꽃무늬	1			1	
	기물문	보배무늬	9			9	9
	확인 불가			18	1		19
합계			42	4	1	47	

## 12) 사례 12의 동원3322 책가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원3322 책가도는 선명한 청색의 배면 색에 채도가 높은 화려한 색상의 기물들이 빼곡히 채워진 10폭 연폭의 병풍이다. 그림의 크기는 세로 140.0cm, 가로 393.0cm로 비단에 채색하였다. 책은 제5폭과 제6폭을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이며 높낮이가 다르게 3단으로 구획하고, 책가 내부면의 색상도 윗면과 아래면의 색상을 다르게 칠하는 등 기존 책가도의 변형을 볼 수 있다.

이 책가도에는 서책류 보다 다양한 종류의 기물 특히 도자기류가 많이 등장하는데 눈여겨 볼만한 기물은 포복문(抱袱紋) 도자기이다(그림 III-27). 도자기에 보자기를 둘러싸은 형태의 포복문병(抱袱紋瓶)<sup>79)</sup>은 이 책가도에 7점이나 등장하였다. 또한 자명종이나 어항과 같은 새로운 기물이 나타난 반면 나무 필통과 같은 19세기 후반까지 등장하던 기물이 사라져 제4기(1880-1910)의 작품임을 추측할 수 있다.

사례 12의 책가도(그림 III-28)에서는 서책류의 수가 확연히 줄어 포갑 39개, 화첩 4개, 권축장 8개가 그려졌고, 이 중 포갑 27개, 화첩 1개, 권축장 8개에서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각형무늬, 연환무늬, 마름꽃무늬 등의 기하문이 포갑 14개, 화첩 1개, 권축장 6개에 그려져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식물문은 등근 넝쿨무늬가 포갑 7개와 권축장 2개에 그려졌고 기물문은 전보와 서각의 보배무늬가 포갑에서만 6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사례 12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36개 중 기하문 21개, 식물문 9개, 기물문 6개의 순이었다(표 III-12).

79) 포복문병(抱袱紋瓶)은 청나라 가경(嘉慶) 연간(1796-1820)에 제작된 당초문이 들어간 목이 길고 기다란 형태의 도자기이다.



〈그림 III-27〉 포복문병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그림 III-28〉 동원3322 책가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표 III-12〉 동원3322 책가도의 책갑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갑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1			1	21
		삼각형+연환무늬	10	1	4	15	
		마름모+십자무늬	2		2	4	
		삼각형무늬	1			1	
	식물문	등근 넝쿨무늬	7		2	9	9
	기물문	보배무늬	6			6	6
	확인 불가		12	3		15	15
합계			39	4	8	51	

13) 사례 13의 여주2039 책가도

여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가 미상의 여주2039 책가도는 화격이 다소 떨어져 민간에서 모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종이에 채색하여 8폭의 연폭 병풍으로 제작되었으며 그림의 크기는 세로 123.0cm, 가로 296.0cm이다.

책가는 제4폭과 제5폭을 중심으로 좌우대칭형 3단으로 구획하였고, 각각의 책가에는 서책류와 기물류를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기물의 종류는 궁중 책가도의 기물들과 흡사하다. 그러나 대상의 윤곽선으로 특징과 입체감을 표현하던 선묘법이 그대로인 점, 책가 내부의 옆면과 기물들에서 전혀 명암의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궁중 화원급의 책가도를 민간의 화원이 모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책갑의 문양에서도 변형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Ⅲ-29>의 책가도 책갑으로는 포갑 62개, 화첩 7개, 권축장 9개가 그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포갑 36개와 권축장 8개에서 문양 확인이 가능하였다. 포갑에서만 삼각형무늬, 마름꽃무늬, 격자무늬 등의 기하문이 15개 확인되었다. 식물문은 29개로 둥근 넝쿨무늬가 포갑 17개와 권축장 2개, 넝쿨무늬가 포갑 4개와 권축장 4개, 화려한 꽃무늬가 권축장 2개에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사례 13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확인 가능한 44개 중 식물문 29개, 기하문 15개 순으로 나타났다(표 Ⅲ-13).



<그림 Ⅲ-29> 여주2039 책가도

출처: 여주박물관 [www.yeaju.go.kr/main/museum](http://www.yeaju.go.kr/main/museum)

〈표 III-13〉 여주2039 책가도의 책감 문양

구분	대분류	소분류	책감			계	소계	
			포갑	화첩	권축장			
문양	기하문	마름꽃무늬	4			4	15	
		마름모+점무늬	5			5		
		삼각형무늬	5			5		
		격자무늬	1			1		
	식물문	둥근 넝쿨무늬	17		2	19	29	
		넝쿨무늬	4		4	8		
		꽃무늬			2	2		
	확인 불가			26	7	1	34	34
	합계			62	7	9	78	

이상으로 13점 책가도의 책감 문양 분석(표 III-14)을 종합해보면 문양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59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포갑 352개, 화첩 29개, 그리고 권축장 78개에 해당되었다.

세부적으로 가장 많은 책감 문양은 기하문으로 마름모무늬가 대표적이었고 그밖에 연환무늬, 삼각형무늬, 격자무늬 등이 단독이나 복합문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들 기하문은 13점의 책가도에서 247개(53.8%)로 나타났다. 식물문은 주로 둥근 원에 넝쿨무늬를 채우는 형태와 전체적으로 넝쿨무늬만을 그려 넣거나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꽃무늬를 넣은 넝쿨꽃무늬 형태였다. 또한 사군자무늬, 과일무늬 등도 포함되어 125개(27.2%)의 식물문이 확인되었다. 동물문은 73개(15.9%)가 확인되었는데 주로 쌍서각, 폭보, 전보, 서보, 여의 등이 그려진 보배무늬나 둥근 넝쿨무늬와 혼합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자연산수문은 구름무늬가 14개(3.1%)로 나타났다.

<표 III-14> 13점의 책가도에 나타난 책갑 문양

대분류	소분류	포갑	화첩	권축장	소계
기하문	마름모무늬(마름꽃무늬 포함)	62	18	19	247
	삼각형무늬	51	-	-	
	연환무늬	25	-	3	
	격자무늬	5	-	-	
	빗금무늬	-	-	1	
	마름모무늬+십자무늬	10	-	5	
	마름모무늬+점무늬	5	-	-	
	삼각형무늬+연환무늬	33	1	5	
	귀갑무늬+십자무늬	2	-	2	
	계	193	19	35	
식물문	등근 넝쿨무늬	64	3	10	125
	넝쿨무늬(넝쿨꽃무늬 포함)	13	7	16	
	꽃무늬(큰꽃무늬 포함)	4	-	2	
	과실무늬	1	-	-	
	사군자무늬	1	-	-	
	등근 넝쿨무늬+기하무늬	-	-	4	
	계	83	10	32	
기물문	보배무늬	39	-	7	73
	보배무늬+등근 넝쿨무늬	27	-	-	
	계	66	-	7	
자연산수문	구름무늬	10	-	4	14
	계	10	-	4	
합계		352	29	78	459

### 3. 문화상품에서 책가도의 책갑 문양 활용 방향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문화상품 가운데 생활용품에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활용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책가도의 책갑에서 대표적인 문양들을 중심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기술한 후 문화상품에서의 활용 방향으로 생활용품에 책갑 문양을 적용하는 목업(mock-up) 작업을 이행하였다. 작업 방법으로는 프리픽(Freepik), 언블라스트(unblast), 미스터목업(mrmockup)<sup>80)</sup>의 목업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문양 일러스트 파일은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sup>81)</sup>에서 제공하는 한국전통 문양 원형DB<sup>82)</sup> 콘텐츠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하였다.

#### 1) 책가도의 책갑 문양별 상징적 의미

##### (1) 기하문(幾何紋)

기하문은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안정감과 긴장감이 조화를 이룬다. 문화재연구소(2006)에서는 기하문을 마름모무늬, 귀갑무늬, 만자무늬, 금무늬, 색동무늬 등으로 구분하였다.<sup>83)</sup>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책가도의 책갑에는 기하문 중 마름모무늬, 삼각형무늬, 연환무늬, 격자무늬, 빗금무늬 등이 확인되었다.

80) 프리픽(Freepik.com), 언블라스트(unblast.com), 미스터목업(mrmockup.com)은 사진, 일러스트, 모형 등 디지털 디자인 소스를 유·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81) 문화포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한국의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분야 문화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이다.

82) 한국 전통 문양 원형DB는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가 우리의 고유한 문양을 문화재, 유물 등으로부터 추출하여 산업적 디자인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하여 산업적 이용을 지원하는 국가DB사업으로 문화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83)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놀와, p.26.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마름모무늬를 문화상품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마름모무늬의 상징적 의미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 길상의 문양이다. 인도 힌두교와 불교사원의 외벽 장식의 마름모무늬는 자연의 광물 중 가장 단단한 금강석(Diamond)과 관련해 영원불변의 빛과 굳건함이라는 상징성을 함축한다. 티베트에서도 마름모형 안에 만자를 써넣은 문양들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sup>84)</sup> 또한 사선을 교차시킨 마름모형 안에 작은 점과 타원으로 꽃 형태를 채워 넣은 마름꽃무늬도 있다.

본 연구의 경우 13점의 책가도 중 사례 1의 장한중 필 책가도와 사례 6의 운현궁000573 책가도에 마름꽃무늬와 마름모무늬가 모두 있었다. 특히 마름꽃무늬는 사례 2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들에서 확인되어 책가도의 책감 문양 중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0> 마름모무늬(좌)와 마름꽃무늬(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emuseum.go.kr](http://www.emuseum.go.kr)

84) 민영순(2019), 운주사 유물·유적의 명문과 문양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0-124.

## (2) 식물문(植物紋)

식물문은 꽃무늬와 과실무늬로 크게 나뉜다. 꽃무늬는 꽃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작고 단순하게 또는 크고 화려하게 도안하였다. 단독의 꽃무늬도 있지만 대부분은 꽃과 함께 넝쿨, 새, 곤충, 보배, 문자 등의 무늬와 다양한 조합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와 유행을 만들어왔다. 우리 선조들은 화목, 다복, 다남, 부귀의 의미를 담은 꽃무늬를 선호하였다. 또한 선비나 군자의 성품을 의미하는 문양으로 사군자무늬를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과실무늬는 풍요와 자손 번창을 상징해왔다.<sup>85)</sup>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책가도의 책갑에는 식물문 중 등근 넝쿨무늬, 넝쿨무늬, 넝쿨꽃무늬, 사군자무늬, 과실무늬 등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넝쿨무늬, 국화무늬가 함께 그려진 넝쿨꽃무늬, 크고 작은 꽃이 함께 그려진 넝쿨꽃무늬를 문화상품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넝쿨무늬는 넝쿨이 힘차게 뻗어가는 모양을 도안한 것으로 인동초무늬와 당초무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겨우살이 풀인 인동초무늬는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는 강인함을 상징한다. 당초무늬는 풀의 이름이 아니라 꽃과 잎, 꽃망울 등이 줄기에 의해 연결되어 물결 형태로 화합을 이루면서 앞으로 뻗어가는 문양이다.<sup>86)</sup> 문인화풍의 수묵화 소재인 사군자에서 국화무늬는 군자의 지조와 절개의 의미로 쓰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넝쿨의 굵기와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13점의 책가도 모두에 넝쿨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국화무늬가 함께 그려진 넝쿨꽃무늬는 사례1의 장한중 필 책가도와 사례3의 이형록 필 책가도에서 나타났다.

85)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놀와, p.27.

86) 박옥련(2000), 한국전통복식문양사, 형설출판사, pp.42-60.



〈그림 III-31〉 Ningkulmun(좌)와 Ningkulkkotmun(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emuseum.go.kr](http://www.emuseum.go.kr)

### (3) 기물문(器物紋)

기물문은 생활 속의 인공기물을 활용한 문양으로 형태보다는 보배나 도구 등의 기물이 내포하고 있는 길상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도안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책가도의 책갑에는 대표적으로 보배무늬가 확인되어 이를 문화상품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보배무늬에는 다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무소뿔 모양의 서각(犀角)을 X자 형태로 교차한 쌍서각(雙犀角), 타고난 복과 벼슬의 의미를 반영하는 책과 화첩 모양의 서보(書寶), 재물과 부귀를 상징하는 엽전 형태의 전보(錢寶), 진실의 저장고를 의미하는 진실함의 두루마리 책 형태인 폭보(幅寶),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영지버섯 형태의 여의(如意) 등이 있다.<sup>87)</sup>

87) 조효숙·이은진(2015),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보배무늬의 변화 경향과 구성 유형. 服飾 65(7), pp.32-46.

본 연구의 경우 13점의 책가도 중 사례 13의 여주2039 책가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보배무늬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사례 10의 고궁6499 책가도와 사례 12의 동원3322 책가도에서는 보배무늬가 주된 문양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에는 둥근 넝쿨무늬로 표현되어 있었다.



〈그림 III-32〉 보배무늬  
좌측부터 서보, 여의, 쌍서각, 폭보, 전보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emuseum.go.kr](http://www.emuseum.go.kr)

#### (4) 자연산수문(自然山水紋)

자연산수문이란 동식물을 제외하고 해, 달, 구름, 별, 물, 바위 등의 산수산경을 소재로 한 무늬로 무한한 생명력 때문에 장수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책가도의 책갑에는 대표적으로 구름무늬가 확인되어 이를 문화상품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구름은 한없이 변화할 수 있는 천변만

화(千變萬化)의 형태뿐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기세(氣勢)로 다양한 무늬로 응용되었다. 또한 구름은 장수의 상징인 십장생 중 하나로 상승의 기운과 성스러운 무늬로 여겨졌으며 주된 문양을 돋보이게 하는 지문(地紋)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sup>88)</sup> 예를 들어 보배무늬로 여백을 채운 운보문(雲寶紋) 형태로 사용되거나 용, 학, 봉황, 박쥐 등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동물들의 배경 무늬가 되기도 하였다.<sup>89)</sup>

본 연구의 경우 구름무늬는 사례 1의 장한중 필 책가도와 사례 2의 팔각 책가도, 사례 8의 전주68671 책가도에서 실조각 형태의 사운(絲雲) 무늬로 표현되었다.



<그림 III-33> 사운(絲雲)의 구름무늬  
출처: 경기도박물관 www.musenet.ggcf.kr

88) <https://www.culture.go.kr/tradition/traditionalPattern.do?type=C> (검색일:2022.04.30)

89)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놀와, p.29.

이상에서 살펴본 책가도의 책갑 문양별 상징적 의미를 종합하면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책가도의 책갑 문양별 상징적 의미

구분	대분류	소분류	상징적 의미
문양	기하문	마름모무늬	영원불변의 빛, 굳건함
	식물문	넝쿨무늬	힘차게 뻗어나감, 강인함
		넝쿨꽃무늬	전진, 강인함, 화합
		국화무늬	지조, 절개
	기물문	쌍서각 보배무늬	다복, 장수
		폭보 보배무늬	진실함
		전보 보배무늬	재물, 부귀의 복
		서보 보배무늬	타고난 복, 벼슬
		여의 보배무늬	상서로움
	자연산수문	구름무늬	장수, 상승 기운, 성스러움

## 2) 문화상품에서 책가도 책갑 문양의 활용

### (1) 문구·사무용품

책갑은 책이 귀했던 시대에 이를 소중히 아끼는 마음으로 포장하는 도구였다. 책이라는 외형과 그 안에 내재된 정신적 가치까지도 보관과 보존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생활 주변의 많은 문구·사무용품이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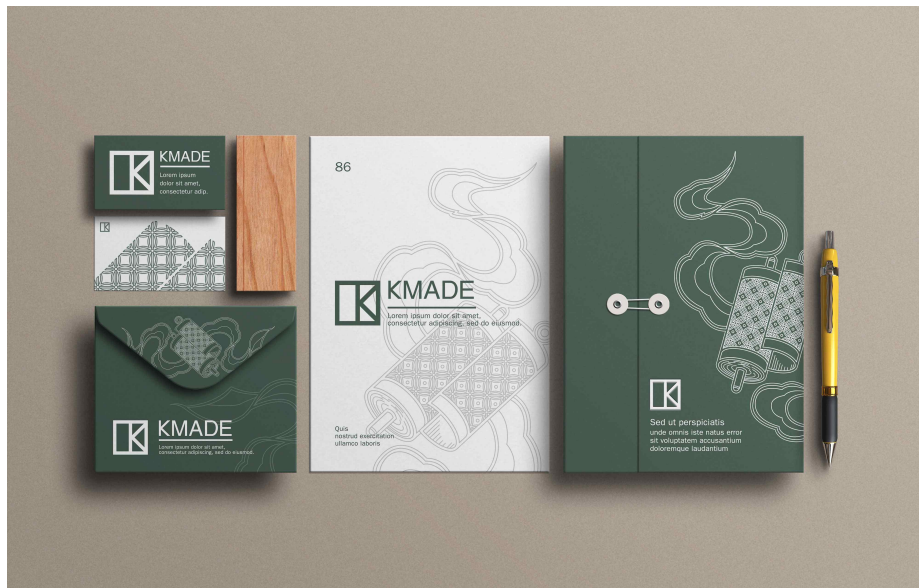
책가도의 책갑 형태 가운데 화첩은 전집류의 책 포장, 도록이나 책의 표지 디자인, 북 아트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책갑은 책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소재이다. 화첩에서처럼 책의 앞뒤 겉장을 장식하는 상황은 재료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현대에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책의 포장 방법이다. 또한 포갑과 같은 형태의 표장도 출판 관련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소재가 된다.

책갑의 문양은 문구·사무용품에 적용하면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배무늬 가운데 진실의 저장고를 의미하는 두루마리 책의 형태인 폭보(幅寶), 재물과 부귀의 복을 상징하는 전보 등은 신뢰, 행복, 번영 등의 상징성과 어울리는 직업군에게 필요한 브랜딩 디자인의 소재로 서류함, 명함 등 데스크용품에 문양을 넣어 활용할 수 있다(그림 III-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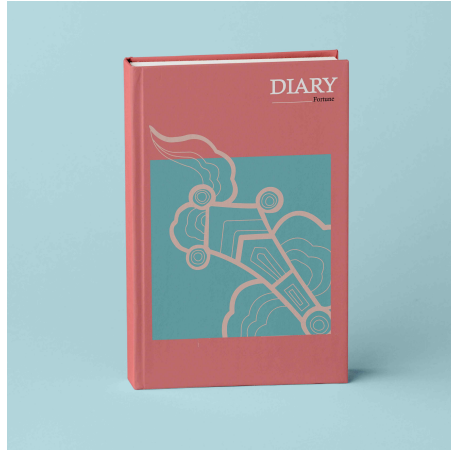
다복과 장수의 의미를 상징하는 쌍서각의 경우 개인의 일상과 추억을 기록하는 맞춤형 다이어리나 사진첩 등에 시문하여 활용할 수 있다(그림 III-35).

한편 <그림 III-36>에서처럼 권축장 형태의 문구·사무용품에 보배무늬를 넣어 쌍서각의 장수와 다복(예시 1), 포복의 신뢰(예시 2), 전보의 부귀(예시

3), 서보의 합격이나 승진(예시 4), 여의의 희망(예시 5)을 기원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다양한 선물용 패키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유사한 맥락으로 보배무늬를 넣은 길고 좁은 원통형 문구·사무용품 안에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나 그림을 넣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림 III-34> 보배무늬를 활용한 문구·사무용품 예시  
출처: 프리픽과 문화포털의 이미지로 연구자 작업



<그림 III-35> 보배무늬를 활용한 다이어리 예시  
출처: 프리픽과 문화포털의 이미지로 연구자 작업



<그림 III-36> 권축장 형태와 보배무늬를 활용한 패키지 예시  
출처: 프리픽과 문화포털의 이미지로 연구자 작업

## (2) 패션 · 잡화용품

책갑의 형태는 보관과 보존의 용도 외에도 이동의 편리함이라는 함의(含意)를 갖고 있으므로 백팩(backpack), 에코백과 같은 가방과 의류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림 III-37>에서와 같이 영원불멸의 빛과 굳건함을 상징하는 마름모무늬를 포갑의 현대적 형태인 백팩에 넣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림 III-38>의 백팩에서처럼 마름모무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동하여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채색의 주된 문양 위에 각기 다른 색상의 한글 무늬를 추가해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예시는 겹쳐진 마름모무늬와 단선의 마름모무늬가 조화롭게 한 쌍을 이루는 유닛(unit)에 해당이 되어 유닛의 반복 문양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III-39>의 에코백은 넝쿨무늬가 전체적으로 전개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크고 작은 꽃무늬를 그려 넣은 넝쿨꽃무늬의 활용 예시이다. 이는 전진과 강인함이라는 넝쿨무늬의 상징적 의미와 꽃무늬가 화합을 이루는 화목과 복의 상징적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III-40>의 티셔츠는 책갑 문양 가운데 식물문의 넝쿨무늬를 활용한 것이다. 기본적인 넝쿨무늬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예시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전진의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강인함이라는 심미적 디자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림 III-37> 포갑 형태와 마름모무늬를 활용한 백팩1 예시  
출처: 미스터목업과 문화포털의 이미지로 연구자 작업



<그림 III-38> 마름모무늬 유닛 패턴을 활용한 백팩2 예시  
출처: 미스터목업과 문화포털의 이미지로 연구자 작업



<그림 III-39> 넝쿨꽃무늬를 활용한 에코백 예시  
출처: 언블라스트와 문화포털의 이미지로 연구자 작업



<그림 III-40> 넝쿨무늬를 활용한 티셔츠 예시  
출처: 프리픽과 문화포털의 이미지로 연구자 작업

### (3) 식생활용품

다음은 식생활과 관련된 용품에서 책갑 문양을 활용하는 목업 작업을 이 행하였다.

먼저 <그림 III-41>은 책갑의 권축장 형태를 닮은 4개의 머그잔에 책갑에서 확인된 문양들을 활용한 것이다. (예시 1)은 사례 3의 이형록 필 책가도에서 확인된 국화무늬가 함께 그려진 넝쿨꽃무늬에서 보이지 않던 부분의 문양 원형을 반사(反射)하여 온전한 국화무늬의 문양을 만든 후 단일문양으로 커다랗게 시문(施紋)한 것이다. (예시 2)는 책갑 문양 가운데 넝쿨무늬를 해체하여 공간적인 원형의 문양을 선적으로 변화시켜 반복적으로 배열하였다. (예시 3)은 책갑에서 나타난 둥근 넝쿨무늬를 외곽선만을 사용하여 개방감 있는 문양으로 변화를 주고 똑같은 문양을 비슷한 형태로 위와 아래에 배치하고 곡선 위주의 시각적 공간에 직선의 로고를 넣었다. (예시 4)는 책갑의 구름무늬를 활용한 것이다. 책갑에서 확인된 구름무늬는 실 조각 같은 형태의 사운(絲雲) 무늬로 일반적인 형태의 구름무늬 안에 사운무늬가 시문된 구름무늬를 특성에 맞게 하늘로 비상하는 형태로 배치하였다.

<그림 III-42>는 백색의 프레이트에 책갑 문양을 활용한 것이다. (예시 1)과 (예시 2)는 둥근 넝쿨무늬와 넝쿨무늬의 일부분을, (예시 3)은 여의(如意) 보배무늬의 일부분을 선으로만 시문하였다. 식기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상서로운 기운이 미치기를 바라는 염원의 의미와 더불어 식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예시한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정리하면 <표 III-16>과 같다.



<그림 III-41> 국화무늬·녕쿨무늬·구름무늬를 활용한 머그잔 예시  
출처: 프리픽과 문화포털의 이미지로 연구자 작업



<그림 III-42> 녕쿨무늬·보배무늬를 활용한 플레이트 예시  
출처: 프리픽과 문화포털의 이미지로 연구자 작업

<표 III-16>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구분	문화상품명	책가도의 책갑 문양	상징적 의미
문구 · 사무용품	서류함	폭보 보배무늬	신뢰, 진실
	명함	전보 보배무늬	재물, 부귀
	다이어리	쌍서각 보배무늬	다복, 장수, 건강
	패키지1	쌍서각 보배무늬	다복, 장수, 건강
	패키지2	폭보 보배무늬	신뢰, 진실
	패키지3	전보 보배무늬	재물, 부귀
	패키지4	서보 보배무늬	합격, 승진
	패키지5	여의 보배무늬	희망, 밝은 미래
패션 · 잡화용품	백팩1	마름모무늬	영원불변, 굳건함
	백팩2	마름모무늬+한글무늬	영원불변, 굳건함, 조화
	에코백	녕쿨꽃무늬	전진, 강인함, 화합
	티셔츠	녕쿨무늬	힘찬 전진, 강인함
식생활 용품	머그잔1	국화무늬	지조, 절개
	머그잔2	녕쿨무늬	힘찬 전진, 강인함
	머그잔3	등근 녍쿨무늬	전진, 강인함
	머그잔4	구름무늬	상승 기운
	플레이트1	등근 녍쿨무늬	전진, 강인함
	플레이트2	녕쿨무늬	힘찬 전진, 강인함
	플레이트3	여의 보배무늬	희망, 밝은 미래

## IV. 결론 및 제언

영국의 문화연구가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1921-1988)는 전통은 오래전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선별되어 과거의 일부 문화 요소만이 이어져 오는 선별된 전통(selective tradition)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전통이 과거의 것을 모두 그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된 일부의 문화 요소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전통은 다분히 현대적<sup>90)</sup>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화라는 전통의 변용은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동반되어 그 시대에 부합되는 가치 있는 문화적 요소로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지금의 현대화가 100년 후, 200년 후에는 또 다른 전통의 요소로서 미래의 현대화에 원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문화상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책가도의 전통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연구의 관점에서 조선 후기 책가도에 나타난 책갑 문양을 기반으로 문화상품에서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총 13점의 조선 후기 책가도를 사례조사로 선정하여 이미 지 자료를 수집한 후 그에 나타난 책갑 문양을 분석하였다. 또한 책갑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여 문화상품에 적용하는 작업을 예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3점의 책가도에서 가장 많은 책갑 문양은 기하문으로 247개(53.8%)가 나타났다. 마름모무늬가 대표적이었고 그 밖에 삼각형무늬, 연환무늬, 격자무늬, 빗금무늬 등이 단독이나 복합문으로 그려져 있었다. 식물문은 125개(27.2%)로 주로 둥근 원에 넝쿨무늬를 채우는 형태와 전체적으로 넝쿨무늬만을 그려 넣거나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꽃무늬

90) 최범(2021), 한국디자인 뒤집어 보기, 안그래픽스, p.123.

를 넣은 넝쿨꽃무늬, 사군자무늬, 과일무늬 등도 있었다. 기물문은 73개(15.9%)가 확인되었는데 쌍서각, 폭보, 전보, 서보, 여의 등이 그려진 보배무늬 혹은 둥근 넝쿨무늬와 보배무늬가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자연산수문은 구름무늬가 14개(3.1%)로 나타났다.

둘째, 책가도의 책갑에서 대표적 문양을 중심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한 결과, 기하문의 마름모무늬는 자연의 광물 중 가장 단단한 금강석과 관련해 영원불변의 빛과 굳건함이라는 상징성을 함축하였다. 식물문의 넝쿨무늬는 넝쿨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강인함을, 넝쿨무늬에 크고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넝쿨꽃무늬는 전진과 화합을, 사군자의 국화무늬는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였다. 기물문의 보배무늬 가운데 쌍서각은 다복과 장수, 서보는 타고난 복과 벼슬, 전보는 재물과 부귀, 폭보는 진실함, 여의는 상서로움을 나타냈다. 자연산수문의 구름무늬는 상승의 기운과 성스러움을 상징하였다.

셋째, 문화상품에서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활용품에 문양을 적용하는 목업(mock-up) 작업을 이행하여 문구·사무용품의 서류함, 명함, 다이어리, 패키지 등에 기물문의 보배무늬를, 패션·잡화용품의 백팩, 에코백, 티셔츠에 기하문의 마름모무늬, 식물문의 넝쿨꽃무늬와 넝쿨무늬를 적용하였다. 또한 식생활용품의 머그잔에 식물문의 국화무늬와 둥근 넝쿨무늬, 자연산수문의 구름무늬를, 플레이트에 둥근 넝쿨무늬와 넝쿨무늬 그리고 보배무늬를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책가도는 전통 채색화의 맥을 잇는 그림이다. 최근 책가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현존하는 책가도 중에는 궁중 화원이 그린 왕실의 유물로 확인되고 있어 책가도의 책갑 문양은 역사적으로 보전되어 온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책가도의 책갑 문양에 반영되는 식물, 종이, 색채 등은 조선 후기의 자연, 외교, 문화, 사회상을 파악하는 사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책가도에 세

밀하게 묘사된 책갑은 다채로운 문양의 표현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발현하여 앞으로 현대의 문화상품에서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문화상품에 활용하는 전통적 요소의 현대적 재조명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책가도 이미지로부터 책갑 문양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로 인한 박탈이나 훼손의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실물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는 경우 이미지 파일이나 도록의 사진에서 문양을 구별하는 데 다소의 한계가 존재하기도 했다. 또한 책가도의 책갑 형태나 문양이 현존하는 문화재와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책가도에 그려진 책갑이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거나 모사가 이루어지면서 조선 후기에 유행하는 문양을 추가적으로 그려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문양의 원형을 발굴, 검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책가도의 작가나 편년에 대해 새롭게 확인이 되거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연구의 시행과 함께 책갑과 같은 책가도의 다양한 문양들을 문화상품에 적용해 활용하는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관식(2001a),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상, 돌베개.
- 강관식(2001b),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하, 돌베개.
- 강관식(2005), 조선의 화원과 궁중화원, 조선 왕실의 미술 문화, 대원사.
- 강명관(2014),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천년의 상상.
- 국립고궁박물관(2017), 조선왕실의 포장예술,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전시도록.
-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놀와.
- 국사편찬위원회(2008), 미술과 시장,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 두산동아(주).
- 박옥련(2000), 한국전통복식문양사, 형설출판사.
- 박정혜(2013), 궁중회화의 세계,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 박정혜 외 3인(2014), 조선시대 궁중화화2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 박주현(2021), 서양화법을 품은 조선의 그림 책가도, 에스앤아이팩토리.
- 서울역사박물관(2008), 운현궁 생활유물Ⅵ, 서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이승미 외 21인(2021), ALL ABOUT 문화콘텐츠, 나무자전거.
- 정병모(2012),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돌베개.
- 정병모(2015), 한국의 채색화 제3권-책거리도와 문자도, 에스앤아이팩토리.
- 차용준(2003), 전통예능문화의 이해. 제5권, 전주대학교출판부.
- 채금석(2017), 문화와 한 디자인: 한국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학고재.
- 천혜봉(2006), 한국서지학, 민음사.
- 최범(2021), 한국디자인 뒤집어 보기, 안그래픽스.
- 황정연(2005),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書畵收藏)과 미술 후원,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 <논문>

- 강관식(2001c), 朝鮮後期 宮中 冊架圖: 조선후기 '民畫'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小考,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자료 66.
- 강관식(2018), 영조대 후반 책가도(冊架圖) 수용의 세 가지 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22.
- 강민아(2009), 조선후기 책거리 그림의 素材연구 : 文房淸婉과 기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자(2018),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1997), 조선시대 민화에 나타난 책거리 그림(책가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원·김선미(2014), 조선시대 민화인 책가도를 현대화한 벽지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
- 김정애(1986), 朝鮮朝 民畫 冊架圖의 造形的 分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길홍(20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형록필 책가도: 덕수4832 <책가도>를 중심으로, 한국고고미술연구소 동원 학술논문집 16.
- 민영순(2019), 운주사 유물·유적의 명문과 문양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심은(2001), 朝鮮時代 冊架圖의 起源 研究,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신애(2008), 책거리 그림의 조형성과 현대적 표현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란(2006), 朝鮮後期 책거리그림과 器物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아(2021), 민화 책거리 그림을 응용한 도자 조명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진영(2011), 전통 민화의 현대 디자인 교육 적용 연구: 책거리도와 효제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영(2014), 조선후반기 궁중 책가도의 편년적(編年的) 고찰, 민화연구 3.
- 이동주(2013), 책가도(冊架圖)를 이용한 도제 벽걸이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연(2015), 조선후기 책거리 그림의 색채특성 분석을 통한 색채 및 배색 팔레트 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라(2008), 민화 책거리 그림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화(2016), 조선 후기 <책가도> 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울화(2013),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의 문화상품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 이은아(2017), 책가도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2004), 冊架畫 · 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 실천민속학연구 6.
- 이정민(2007), 조선후기 책거리 조형성의 근원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2017), 李亨祿과 19세기 조선 화단,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필기(1999), 18·19세기 冊架圖에 대한 고찰,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희관(2015), 백제 유물과 문양을 활용한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 개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예린(2021), 전통민화의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상품 실태 연구: 화조화(花鳥  
畫)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 정지희(2016), 민화를 소재로 한 주전자 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조효숙·이은진(2015),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보배무늬의 변화 경향과 구성  
유형. 服飾 65(7).
- 차경실(2014), '책거리그림'을 통한 미술표현 지도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경·이부영(2016), 책거리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화예유형과 꽃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화예디자인연구 34.
- 한세현(2018), 19세기 책가도(冊架圖)의 새로운 경향, 美術史學 35.
- 홍선표(1997), 조선후기의 회화 애호풍조와 鑑評活動, 미술사논단 5.

#### <인터넷 사이트>

<https://craftmuseum.seoul.go.kr>

<https://db.itkc.or.kr>

<https://www.culture.go.kr>

<http://www.emuseum.go.kr>

<https://www.freepik.com>

<https://www.gogung.go.kr>

<https://www.heritage.go.kr>

<https://jeonju.museum.go.kr>

<https://www.kogl.or.kr>  
<https://www.law.go.kr>  
<https://mrmockup.com>  
<https://www.museum.go.kr>  
<https://mrmockup.com>  
<https://museum.seoul.go.kr>  
<https://musenet.ggcf.kr>  
<https://www.nfm.go.kr>  
<https://portal.nrich.go.kr>  
<http://www.slist.kr>  
<https://terms.naver.com>  
<https://unblast.com>  
<https://www.yeaju.go.kr/main/museum>

## ABSTRACT

### A Study on the Cultural Products Using the Bookcase Pattern of Chaekgado in the Late Joseon Dynasty

Yoo, Heejeong  
Korean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use of cultural products based on the patterns that appeared in the Chaekgado bookcase draw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discover and re-exam the traditional elements of the Chaekgado. From September 1 to December 31, 2021,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Internet sites and publications from the National Palace Museum, the Gyeonggi Museum, the Seoul Craft Museum, the Seoul Museum of History, the Yeosu Museum, and the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The works for this study were limited first to those which were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as the Chaekgado of the royal paint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le also considering the composition of the Chaekgado, the types of objects, and the application of Western painting techniques. The second

selection criteria limited the study to works of the late Joseon dynasty in which the pattern of the bookcase was clearly identifiable and relatively well-preserved.

Based on these criteria, the Chaekgado drawn by Jang Han-jong(Gyeonggi Museum), the octagonal Chaekgado(private collection), Hyeong-rok Lee Chaekgado (private collection), and Eung-rok Lee Chaekgado(National Museum of Korea) produced between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late 19th century based on these criteria, Lee Eung-rok Chaekgado(Asian Art Museum, San Francisco, USA), Unhyeongung000573 Chaekgado(Seoul Museum of History), Unhyeongung000574 Chaekgado(Seoul Museum of History), Jeonju 68671Chaekgado(Jeonju National Museum), Lee Taek-kyun Chaekgado(Seoul Crafts Museum), Gogung6499 Chaekgado(National Palace Museum), Gogung6500 Chaekgado(National Palace Museum), Dongwon 3322 Chaekgado(National Museum of Korea), Yeosu2039 Chaekgado(Yeosu Museum), and the image of the bookcase(chaekgap) pattern data were collected.

As a method of analyzing the pattern of the bookcases of these 13 Chaekgados, first, the bookcases of the Chaekgado were limited to the categories of the Pogap wrapped with paper and fabric, a Hwacheop that wrapped the front and back covers of the bookcase, and the cylindrical scroll book, Kwonchukjang. The bookcase patterns of Chaekgado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geometric patterns, artificial patterns, plant patterns, and natural hydrological patterns, and then subdivided according to the images included in each. Next, the number of Pogap , Hwacheop, and Kwonchukjang and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patterns were counted for each Chaekgado.

First, the main study results showed that 247 (53.8%) of the bookcase patterns were geometric patterns, the largest number of bookcase patterns in 13 Chaekgados. Diamond patterns were representative, and other ring patterns, triangular patterns, and grid patterns were drawn alone or in compound patterns. 125 plant patterns (27.2%) were confirmed. Most of them are vine patterns, but they were in the form of filling a round circle with vine patterns, and vine flower patterns with only vine patterns drawn in the whole or with large and small flower patterns in between. In addition, there were Four gracious plants, lotus flower patterns, and fruit patterns. 73 items (15.9%) of the artificial patterns were identified, and it was expressed in combination with a treasure pattern or a round vine pattern with Ssangseogak, Pokbo, Jeonbo, Seobo, and Yeo. Finally, 14 could patterns (3.1% were) nature's patterns.

Second, as a result of grasping the symbolic meaning of the representative patterns in the bookcase of Chaekgado, the diamond pattern of the geometry has a symbolic meaning of eternal light and hardness in relation to the diamond being in the hardest among the natural minerals. The vine pattern of the plant pattern symbolized the strength of the vine, and the chrysanthemum pattern of the Four gracious plants symbolized the principles and incisions of the noble. Among the treasure patterns of artificial, Ssangseogak showed multiple blessings and longevity, Seobo showed natural blessings and government posts, Jeonbo showed treasure and wealth, Pokbo showed sincerity, and Yeo showed auspiciousness. The cloud pattern of the nature's pattern symbolized the energy of ascension and sacredness.

Third, in the direction of using the bookcase pattern of Chaekgado in

cultural products, a mock-up operation of applying the pattern to household items was carried out, and the treasure pattern of the article was applied to the filing cabinet of stationery and office supplies, business cards, fashion and miscellaneous goods. The rhombic pattern and the vine pattern of the plant pattern were included in the backpack or eco bag of the company, the chrysanthemum pattern and the round vine pattern of the plant pattern and the cloud pattern of the nature's pattern were included in the mug of food products.

In conclusion, the book cover pattern of Chaekgado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preserved historically. In the future, it implies infinite possibilities for use in modern cultural products.